

정책자료 06-0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시사점

이창수·김민성·윤창인·김진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 요약

- 1994년 NAFTA 이행 이후 멕시코는 경제 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
 - NAFTA 이행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임.
 - 멕시코의 대 미국 및 대세계 교역과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6-2000 기간중 실질 GDP 증가율은 1991-93 기간중 평균에 비해 2.2% 포인트 증가하였음.
 -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대부분의 멕시코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무역자유화 이전 보호주의 체제하 주요 경공업 지역이었던 Guanajuato는 개방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음.
- 그러나 NAFTA 발효와 함께 발생한 정치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1990년대 중반 실질 GDP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 농가의 타격 등을 경험함. 또한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을 경험
 - 일부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1994년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화의 원인을 NAFTA에서 찾기는 무리가 있음(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4장 전문가 설문내용).
 - 멕시코 정책담당자들은 NAFTA가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아래 안주해 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아래 뿌리 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되어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함.
- 멕시코의 경우 FTA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한 FTA의 잠재적 이익실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조정정책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음.
-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자연적 현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 멕시코의 지역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1985년 이전 및 이후의 경제 중심축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지역간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NAFTA에서 찾는 것은 무리임.
- 북부 수출산업(마길라도라산업)과 중부 제조업 중심 산업(멕시코 공업 벨트, 과서 수입 대체 산업, 내수 산업), 또한 북부 농업(현대적 경작 기술과 관개 농업)과 남부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 기술 사용 농업)의 지역간 빈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1985년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혜택이 북부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결과, 즉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으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지 NAFTA 등 무역자유화에 의한 것은 아님.
- 농업기반의 피해지역인 Chiapas주의 경우 NAFTA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 중심의 2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 1995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은 NAFTA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위기
에 의한 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én, 2003).
- 멕시코 임금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6년 이후 안정상태 또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NAFTA 이후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무역자유화 자체가 임금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는 증거는 없음 (Rodrigues-Lopez, 2003).
 - 마길라도라는 NAFTA 이행에 따른 수출가공구로서의 배타적 매력(면세혜택)이 상실됨으로써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NAFTA 이후 급성장을 경험함.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 대 멕시코 농산물 수출 증가를 예상했으나 반대로 멕시코의 대 미국 신선야채 수출이 급증함.
 - 무역자유화의 직접적 효과(관세인하)보다 FTA의 간접효과, 즉 상대국의 실질소득, 실질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이 농산물 무역패턴 결정의 중요인임(Málaga et al, 2001).
 - 미국경제 종속심화 비판과 달리 멕시코 정책담당자는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FTA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평가.
- 멕시코 정책 담당자들은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
 -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비현대적 전통부문의 부재 및 소득 불평등의 상대적 약화, 제조업 등 기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보유, 멕시코와 같은 비효율-저경쟁력의 부실기업 미보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응집력, 높은 수준의 인적 및 R&D 투자 등의 특성이 있어, FTA의 긍정적 효과실현의 잠재력이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생각됨.
- 멕시코의 경험을 볼 때 FTA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이 대단히 중요함.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o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구상이 중요함.

차 례

제1장 서론	1
제2장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5
1. 실질 GDP	6
2. 교역	6
3. 투자(FDI)	9
4. 고용	12
제3장 멕시코 쟁점사항 분석	15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15
가. 임금불평등	15
나. 소득불평등	17
2. 지역간 불평등	19
3. NAFTA 이후 마길라도라의 성장	22
4. NAFATA 이후 멕시코 북부 농업의 성장	25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26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30
1. 설문결과 요약	30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3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46
참고문헌	53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 결과 내용	55

표 차 례

<표 2-1> 멕시코의 실질 GDP 성장률	5
<표 2-2> 멕시코 무역의 GDP 비중	6
<표 2-3> 멕시코의 수출입 추이	6
<표 2-4> 멕시코 폐소화의 대미달러 환율변화 추이	9
<표 2-5> 멕시코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비중	11
<표 2-6> 산업별 고용 분포	13
<표 3-1> 숙련 및 미숙련 노동의 연평균 실질임금성장률 (추정치)	17
<표 3-2> OECD 국가 빈곤률과 빈곤격차	18
<표 3-3> 멕시코 주의 주요지표 비교	21
<표 3-4> 마길라도라의 무역액 및 무역 비중	22
<표 3-5> 마길라도라의 고용자수	24
<표 3-6> 멕시코 영화 산업의 주요 사건 및 현황	27
<표 3-7> 멕시코 영화 산업 추이	28
<표 4-1> 설문결과 정리 요약	43
<표 5-1> 교육 성과	51
<표 5-2> GDP 대비 R&D 투자 비중	51
<표 5-3> 특허권수	52
<표 5-4> 노동 생산성 증가율	52

그 립 차 례

<그림 2-1> 멕시코의 무역수지 추이	7
<그림 2-2> 멕시코의 국가별 수출 비중	8
<그림 2-3> 멕시코의 국가별 수입 비중	9
<그림 2-4> 멕시코의 FDI 유입 추이	10
<그림 2-5> 멕시코의 실업률 추이	12
<그림 2-6> 멕시코의 임금 변화 추이	13
<그림 2-7> 제조업부문 단위노동비용	14
<그림 3-1>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 (Gini 계수) 비교	18
<그림 3-2> 對멕시코 FDI 마길라도라 비중 추이	23

부 록 차 례

<부록 표 1> 멕시코의 국가별 FDI 유입 비중	80
<부록 표 2> 멕시코 지역별 1인당 GDP	81
<부록 표 3> 한국과 멕시코의 대세계 경쟁력 비교(2001-03년 평균)	82
<부록 표 4> 멕시코의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83
<부록 표 5> 멕시코의 국경 간(Cross-border) 인수합병(M&A) 현황	83
<부록 표 6> 그린필드(Greenfield) FDI 프로젝트 수	83

제1장 서론

□ 연구의 배경

- 2007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 FTA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경제구조의 선진화, 무역 증대, 외국 투자 자본 유치,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등 경제적 이익 확보의 전략으로 한·미 FTA를 활용할 것을 제안함. 또한 한미 동맹 관계 강화, 동북아시아 허브로서의 한국의 위상 확보 등 정치·외교적인 이익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함.
 - o 개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로 방어적인 자세만 고수할 경우 그 만큼 세계 수출시장에서 반사적인 손해를 보게 될 개연성이 증가할 것임.
- 반면 반대론자들은 한국의 미국경제 종속 심화, 농업에서의 타격, 의료·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몰락, 양극화 심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고 있음.
 - o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실증적인 증거로 NAFTA 체결 후 경제적 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사례를 제시함.
- 그러나 부정적 사회현상이 1994년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한 추론임. 부정적 사회현상의 실체 및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o 멕시코의 경우 FTA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한 FTA의 잠재적 이익실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정책이 부족했던 분야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나아가 양국의 경제제도·경쟁력 및 기술수준에서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않고,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험을 한국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NAFTA 이후 멕시코에서 발생한 부정적 경제 현상의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정확한 원인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o 또한 멕시코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에 앞서 한국과 멕시코 경제의 차별성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폐쇄경제 체제(수입대체공업화)의 구조적 문제로 두 번의 외채위기를 경험한 멕시코는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 및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으로 경제정책기조가 변화함.
 - o 1986년에 GATT에 가입하고 1992년에는 NAFTA 체결에 이름.
 - o NAFTA 이행은 1985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한 무역자유화로의 정책변화에 반대하여 그 이전의 보호주의적 폐쇄적 경제정책으로 회귀하고자 했던 일부 흐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무역자유화의 정점으로 이해되고 있음.
 - o NAFTA를 통해 경제 성장, 교역 및 투자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으나, 1994년 급작스런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환 위기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실업률 증가, 임금·소득 불평등, 지역간 양극화, 곡물 생계농가의 몰락¹⁾ 등을 경험함.
- 일부에서는 이같은 멕시코의 부정적 현상들이 발생한 체계에 대한 이해없이, 물리적으로 NAFTA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나, 각 통계수치 개선 또는 악화의 원인을 NAFTA 요인으로만 찾기는 곤란함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 Ramirez(2003), Neaver(2004)에 의하면 이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은 NAFTA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NAFTA 요인과 비 NAFTA 요인의 정확한 기여분을 구별하기 어려움.
 - o 1985년 이전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에서 축적된 경제적 모순의 잔존
 - o 1985년 이후 급격한 무역자유화의 효과 누적

1) NAFTA 농업개방 정책과 함께 추진해야 할 농업경제 구조조정정책, 즉 농업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에 있어서의 준비부족이 주요원인임 (Hufbauer and Schott, 2005).

- o 1994년 NAFTA 발효
- o 1994년 금융위기의 동시 진행
- o 미국경제 호황 (및 저금리)(1994-2000)
- o 정치사회적 불안정

- 본 연구에서는 멕시코가 경험한 실체적 현상들의 원인 진단을 통해 NAFTA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미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구성

- 2장에서는 1994년 NAFTA 이행을 전후하여 실질GDP, 교역, 투자(FDI) 고용 등 주요 거시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3장에서는 주로 NAFTA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제시되었던 부정적 경제변화의 주요 쟁점사항(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지역간불평등, NAFTA 이후 마길라도라 성장의 명암, 농업에서의 양극화, 영화산업의 몰락)의 실체적 사실을 기존 연구논문의 결과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발생원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4장에서는 NAFTA 이후 피해집단 또는 이익집단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각주의 책임있는 정책담당자를 심층면접하여, 피해 또는 이익의 실체, 원인, 평가 및 권고사항을 정리하고자 함.
- 5장에서는 2, 3, 4장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멕시코 사례가 한-미 FTA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특히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의 한계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멕시코 경제변화 일지>

- 1940년대부터 수입대체공업화
 - o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산업부문 보호
 - o 1940~85년: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유지
- 1986년 무역자유화 시작: 급격한 무역정책 변화 경험
 - o 1982-88년 Miguel de La Madrid 행정부
 - o 1988-94년 Carlos Salinas de Gortari 행정부
 - o 1980년대 들어 급작스런 석유 값 폭락에 따른 오일 쇼크로 인한 외채위기 이후 GATT 가입
 - o 1986년 이후 보호수준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수출입이 급격하게 증가
- 1994년 NAFTA 발효
 - o NAFTA 발효 당일인 1994년 1월 1일 Chiapas 지역에서 원주민을 중심으로 Zapatista 봉기
 - o 3월 Luis Donaldo Colosio 대통령 후보 암살
 - o Peso 위기로 인해 실질GDP 6.2% 하락하면서 1932년 이래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함

<멕시코의 FTA 현황>

년도	국제 기구 가입 및 FTA
1986	GATT 가입
1992	ECA :칠레
1993	APEC 가입
1994	OECD 가입 FTA: 미국, 캐나다
1995	FTA: 코스타리카 FTA: 볼리비아 FTA: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1998	FTA: 니카라과
1999-2001	FTA: 칠레 FTA: 이스라엘 FTA: EU FTA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사바도르 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3-04	FTA: 우루과이 FTA: 일본

제2장 주요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멕시코는 경제 성장률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등의 긍정적 거시경제효과가 발생함.

- NAFTA 이행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중요한 요인임.

1. 실질 GDP

□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멕시코의 실질 GDP 성장률이 상승

- NAFTA 이전 멕시코는 1990년대 초 3.2%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였으며 NAFTA 체결 해인 1994년에는 4.5%의 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1995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폐소화 가치 하락으로 -6.2%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후 미국의 경제 호황에 힘입어 1996~2000년 5.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빠르게 회복

<표 2-1> 멕시코의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년도	1991~93	1994	1995	1996~2000	2001~2003	2004
성장률	3.2	4.5	-6.2	5.4	0.6	4.2

자료:OECD. OECD FACTBOOK 2005

- NAFTA 찬성론자들은 석유 파동으로 인한 1982년 위기 때와 비교하여 멕시코의 이같이 빠른 GDP 성장의 회복을 NAFTA 요인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의 누적적인 효과도 NAFTA와 함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임.

o 1990년대 후반 미국의 경제 호황, FDI의 유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물가와 환율 등에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멕시코가 경제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평가함.

2. 교역

□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멕시코의 무역량이 증가함

- 멕시코는 1986년 GATT 가입 이후 무역자유화 정책을 실시
 - o NAFTA 가입 전 1990년-93년 GDP의 연평균 36.0%를 차지하던 무역량이 1995년 58.1%로 급상승하였음. 1996-2000년에는 연평균 62.7%를 보이며 멕시코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

<표 2-2> 멕시코 무역의 GDP 비중

(단위:%)

년도	1990~93	1994	1995	1996 ~ 2000	2001~ 03
비중	36.0	38.5	58.1	62.7	57.1

자료: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멕시코 수출은 1986~93년 기간중 연평균 310억 달러를 기록하다 NAFTA 체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o 1995년 795억 달러
 - o 1996~2000년 기간중 연평균 1,253억 달러
 - o 2004년 1,878억 달러를 기록
- 멕시코 수입규모도 1994년 이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o 1986~93 기간 중 377억 달러
 - o 1995년 800억 달러
 - o 1996~2000 기간 중 1,416억 달러
 - o 2004년 2,213억 달러

<표 2-3> 멕시코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1986~93	1994	1995	1996~2000	2001~03	2004
對 세계	수출	30,994	60,890	79,549	125,307	161,675	187,812
	수입	37,677	87,284	79,700	141,568	190,638	221,271
對 미국	수출	23,335	51,944	66,475	109,260	142,252	164,522
	수입	26,394	62,710	59,394	104,690	119,417	121,909
對 캐나다	수출	623	1,470	1,979	2,316	3,039	3,292
	수입	634	1,760	1,512	2,853	4,706	5,860

자료: IMF, DOTS CDROM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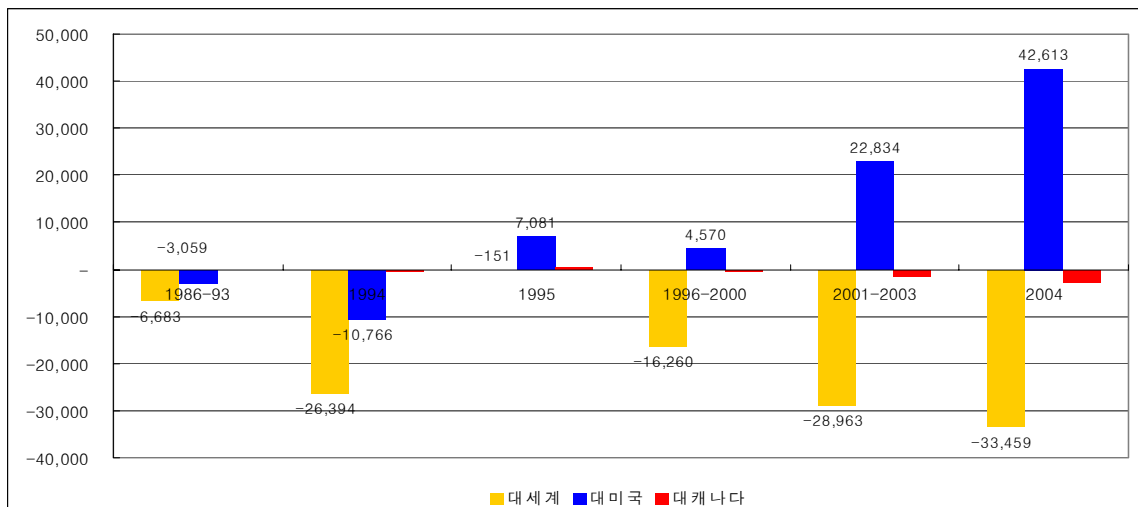
- 만성적인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했던 멕시코는 1995년 이후 1억 5천만 달러까지 적자 폭이 감소하였으나 1996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대미 무역수지는 NAFTA 체결 이전 적자를 기록했으나, NAFTA 체결 이후 1995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o 1995년 대미 흑자 71억 달러
 - o 2004년 흑자규모 426억 달러
- 캐나다와의 무역수지는 NAFTA 직후 소폭 흑자를 기록하나 다시 적자 추세로 전환됨.

□ 무역에서의 대미수출의존도 심화

- 1984년 대세계 수출의 58%를 차지했던 대미 수출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NAFTA 이후 대미 수출의존도가 급격하게 증가
 - o 1995년 83.57%, 2000년 88.69%, 2004년 87.6% 기록
- 1985년 무역자유화 이후 대미 수입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0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
 - o 멕시코의 대미 수입비중은 1984년 62.35%, 1991년에는 73.92%로 증가.
 - o NAFTA 체결 해인 1994년 71.85%, 1995년 74.52%로 미국에 대한 수입 비중이 70%를 넘었으나, 2000년대 들어 감소. 2001년 66.1%를 시작으로 2003년 60.6%, 2004년 55.1%로 수입비중이 하락하고 있음.

<그림 2-1> 멕시코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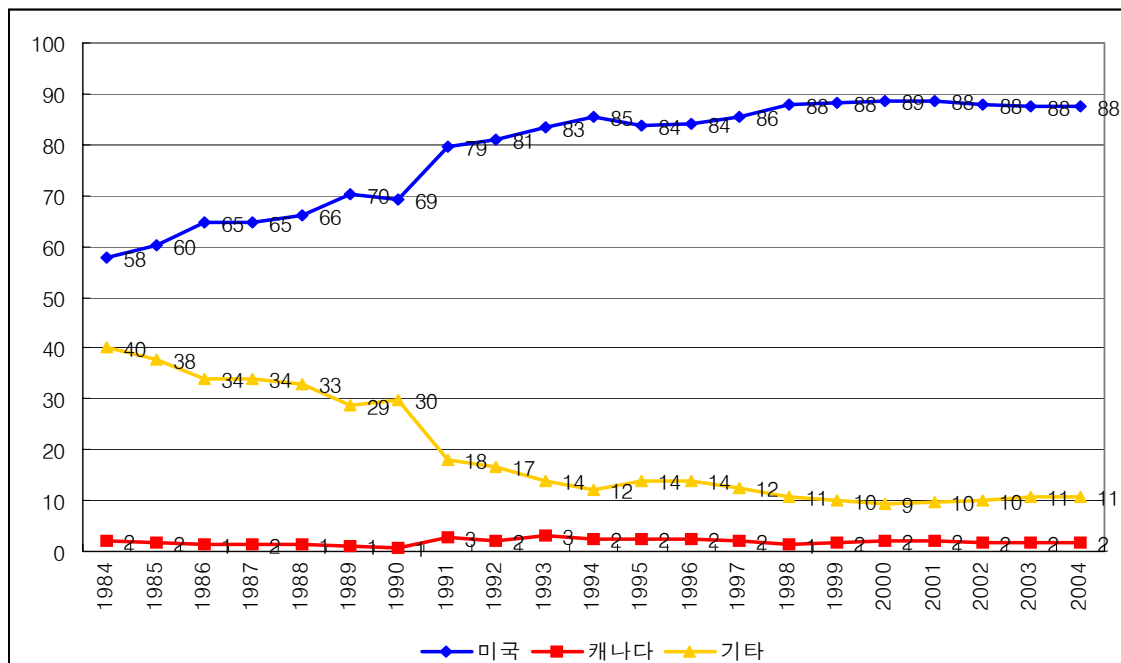
자료: IMF, DOTS CDROM 2005

□ 멕시코 수출증가의 요인

- NAFTA 이후 멕시코의 수출이 증가한 것은 NAFTA에 따른 관세 인하 요인과 함께 폐소화 평가절하, 미국의 경기상승 등 비 NAFTA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NAFTA 요인과 비 NAFTA 요인의 정확한 기여도를 분리해내기는 매우 어려움(Ramirez, 2003).
 - o 그러나 NAFTA가 멕시코 수출증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함.
- 비 NAFTA 요인 또한 중요함(Gruben, 2001)
 - o 폐소위기(1994~1995)에 따른 평가절하: 1994년 폐소 위기 전 미국 1달러당 3 페소대를 유지하던 환율이 1994년 이후 1달러당 6.42 페소로 폐소화 가치가 2배 이상 하락하여 멕시코 수출산업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됨(Goul, 1998).
 - o 미국의 경기상승 (1994-2000)

<그림 2-2> 멕시코의 국가별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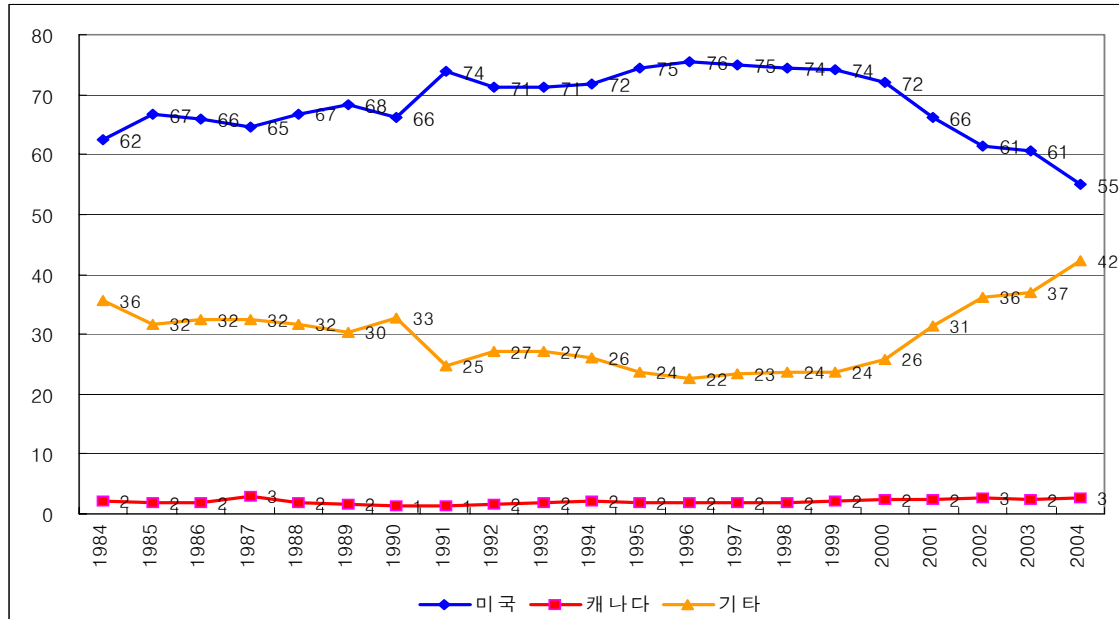
(단위:%)



자료:IMF, DOTS CDROM 2005

<그림 2-3> 멕시코의 국가별 수입 비중

(단위:%)



자료: IMF, DOTS CDROM 2005

<표 2-4> 멕시코 페소화의 대미달러 환율변화 추이

(단위:1 Peso/ US Dollar)

년도	환율	년도	환율
1989	2.46	1997	7.92
1990	2.81	1998	9.14
1991	3.02	1999	9.56
1992	3.09	2000	9.46
1993	3.12	2001	9.34
1994	3.38	2002	9.66
1995	6.42	2003	10.79
1996	7.60	2004	11.29

자료: IMF, IFS CDROM 2005

3. 투자(FDI)

□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멕시코로의 FDI 유입이 증가함.

- 1980년대 이후 멕시코 정부가 자유화,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등 대외지향적 전략추진으로 외국인투자유입이 누적되고 있었음(Ramirez,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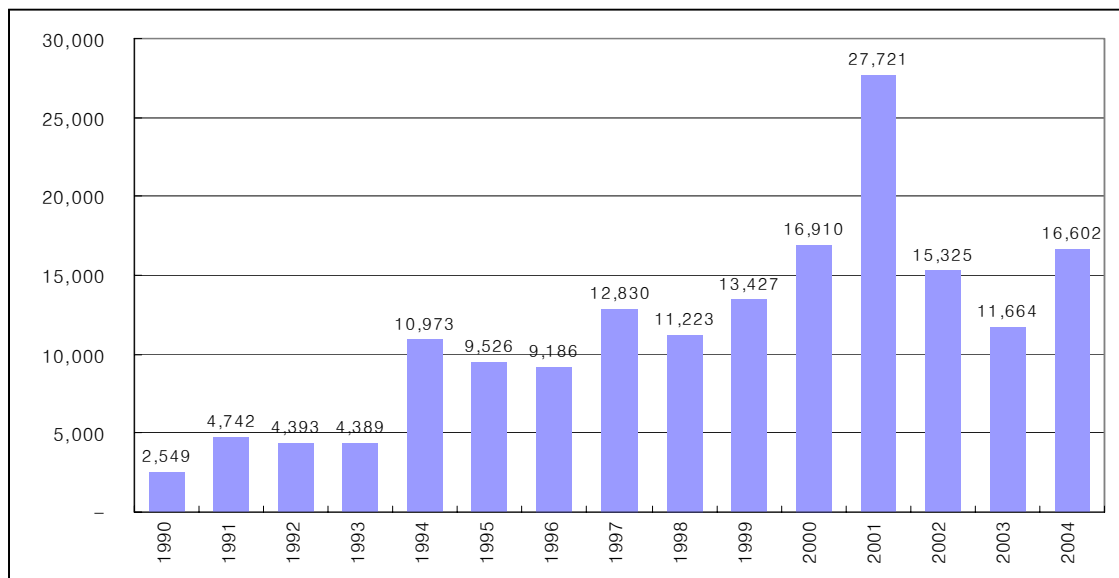
- 1993년 44억 달러였던 FDI 유입규모가, 1994년 110억 달러 규모로, 2001년에는 277억 달러로 급상승하였음.

□ NAFTA 이후 멕시코의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유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비중은 1994년 33%에서, 1995년 56.8%로 증가한 후, 2001년에는 78.2%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참조 부록 표 1).

<그림 2-4> 멕시코의 FDI 유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자료: IMF, IFS CDRM 2005

□ 멕시코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야별 유입현황을 보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1996년 41.1%이었던 제조업 비중이 1999년에는 68.1%로 증가.

o 이후 제조업 비중이 감소2)

- NAFTA이후 소형 승용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산업용기계 및 컴퓨터, 전

2) 제조업을 중심으로 멕시코에 유입되었던 외국인직접투자가 2000년 이후에는 금융서비스, 수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부문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제조업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중국변수가 작용한 결과임(Hufbauer and Schott, 2005).

자기기, 수송기기, 가공식품, 기초석유화학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이 급증

- o 멕시코의 저임금과 NAFTA 원산지 규정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에 외국인 투자가 유입된 것으로 평가
- o 멕시코 제조업은 현재 저임금의 노동집약산업 및 공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고기술·고부가가치산업에서는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

- 2001년도 이후에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급증하여 2001년 서비스 부문 유입비중이 80.9%를 기록. 2001년에는 56.8%를 차지함.

- 포트폴리오 투자, M&A 투자 및 그린필드 투자 현황은 <부록 표 4>, <부록 표 5> 및 <부록 표 6>참조.

<표 2-5> 멕시코 분야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비중

(단위:%)

분야/ 산업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차 산업	0.7	0.9	1.2	1.0	0.6	1.6	1.7	0.1	1.0
농수산업	0.1	0.1	0.3	0.1	0.2	0.6	0.6	0.0	0.0
채광, 채석, 원유	0.7	0.8	0.8	0.9	0.3	1.0	1.2	0.1	0.9
2차 산업	41.1	50.3	47.3	51.4	41.9	68.1	57.3	18.9	42.2
음식료품 및 담배	12.0	6.8	5.0	20.9	6.0	7.7	7.7	3.4	3.2
화학물 및 화학제품	4.3	5.9	12.0	5.7	9.5	7.4	8.5	0.8	5.1
비금속 광물 제품	0.3	0.9	0.3	0.0	0.1	1.8	0.9	0.4	-0.9
금속 및 금속 제품	8.9	1.5	3.3	0.7	0.4	2.1	1.9	0.7	0.2
1차 금속	8.9	1.5	3.3	0.7	0.4	2.1	1.9	0.7	0.2
기계 및 장비	12.6	30.0	22.2	19.4	19.1	41.1	26.2	10.3	26.6
기타 제조업	3.0	5.2	4.5	4.6	6.7	8.0	12.1	3.3	8.1
3차 산업	28.9	35.1	29.0	33.2	24.3	30.3	41.0	80.9	56.8
전기, 가스 및 수도	0.1	0.0	0.0	0.0	0.2	1.1	0.8	1.1	0.3
건설	1.7	0.3	0.3	0.8	0.7	1.0	1.1	0.3	1.0
무역	8.3	10.5	7.3	13.4	7.7	9.3	14.1	6.1	11.6
숙박 및 음식점업	4.8	1.1	1.7	4.0	1.6	2.3	2.2	1.2	2.0
수송, 보관 및 통신	4.8	9.1	4.3	4.8	3.6	2.2	-15.3	11.5	7.7
금융	4.8	9.9	11.2	6.8	5.1	2.7	27.4	52.2	29.5
기업 활동	3.2	2.1	2.8	1.4	2.9	6.5	8.1	7.1	2.5
동산	1.5	0.7	0.6	0.4	0.5	1.3	1.7	0.5	0.5
기타 기업 활동	1.8	1.4	2.1	1.0	2.4	5.2	6.4	6.6	1.9
기타 서비스	1.2	2.2	1.5	1.9	2.4	5.2	2.7	1.5	2.1
명시되지 않은 부분	29.3	13.7	22.5	14.4	33.2	-	-	-	-

자료: UNCTAD, SECOFI

4. 고용

□ NAFTA는 교역재 부문을 중심으로 멕시코의 고용증가에 기여

- 그러나 매년 100만명 고용을 창출하고 농촌지역의 빈곤을 해소할 것이라는 정치인의 근거없는 과장된 주장은 실현되지 않았음(Hufbauer and Schott,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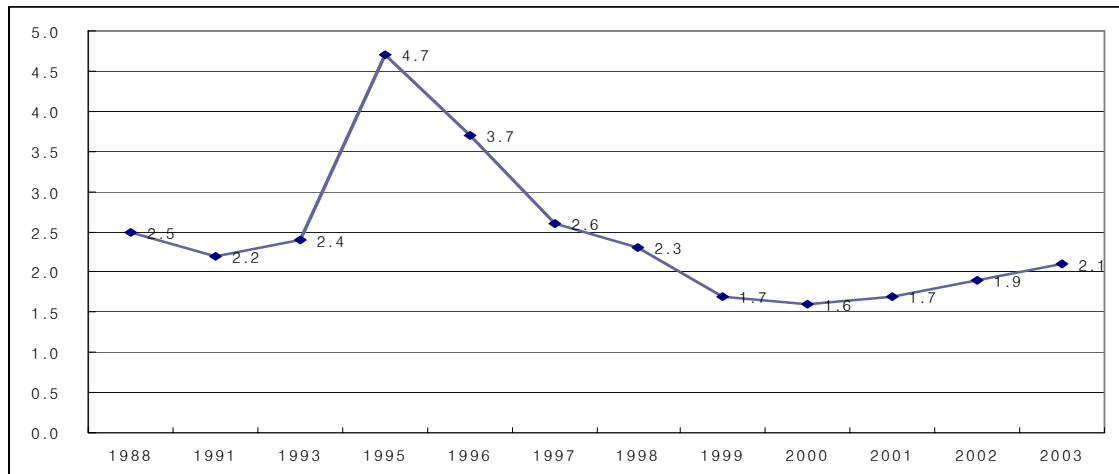
o FTA의 잠재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내부문제에 구조개혁없이 개방의 이익만을 기대할 수 없음.

□ 1995-1996년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악화를 경험하였으나, 그 원인은 NAFTA가 아니라 외화위기(페소화 절하)에 따른 경기침체이었음. 산업의 경쟁력 여부에 따라 산업별 구조조정이 발생함.

- 무역자유화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2%대에 머물던 실업률이 1994년 이후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정을 찾아 2000년 1.6%, 2003 2.1%로 감소함.

<그림 2-5> 멕시코의 실업률 추이

(단위:%)



자료: IMF, IFS CDROM 2005

□ 1994년과 2004년을 비교할 때 고용의 산업별 구성비중이 변화

-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성비가 증가하고 1차 산업의 구성비는 감소함.

o 1994년 1차산업(농업, 임업, 수산업)의 고용비중은 25.8%, 2차 산업은 22.2%,

서비스산업은 52.1%이었으나, 2004년에는 1차 산업 비중이 15.9%로 크게 감소하였고 2차산업 및 3차산업의 비중은 각각 2.8% 및 7.0% 포인트 증가함.

- NAFTA 체결 이후 수출증가에 힘입어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비 마quil라도라 및 영세농업부문의 고용은 감소함.
- o 결과적으로 산업별, 지역별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FTA 이전 산업구조조정의 미흡성과 FTA이후 이익 및 피해집단관련 국내조정정책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Ramirez, 2003, 4장의 설문조사).

□ 임금 하락

- 1990년대 이래 금융위기 및 무역자유화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및 평균실질 임금 구매력의 지속적 하락을 경험.
- o 이를 반영하여 GDP대비 노동소득비중도 하락하여 1980년대 초 40%, 1994년 30.9%, 2000년에는 18.7%를 차지함 (Ramirez, 2003)
- 멕시코의 임금은 금융위기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03년부터 위기이전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됨
- o 1995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은 NAFTA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위기(인플레이션 증가)에 의한 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표 2-6> 산업별 고용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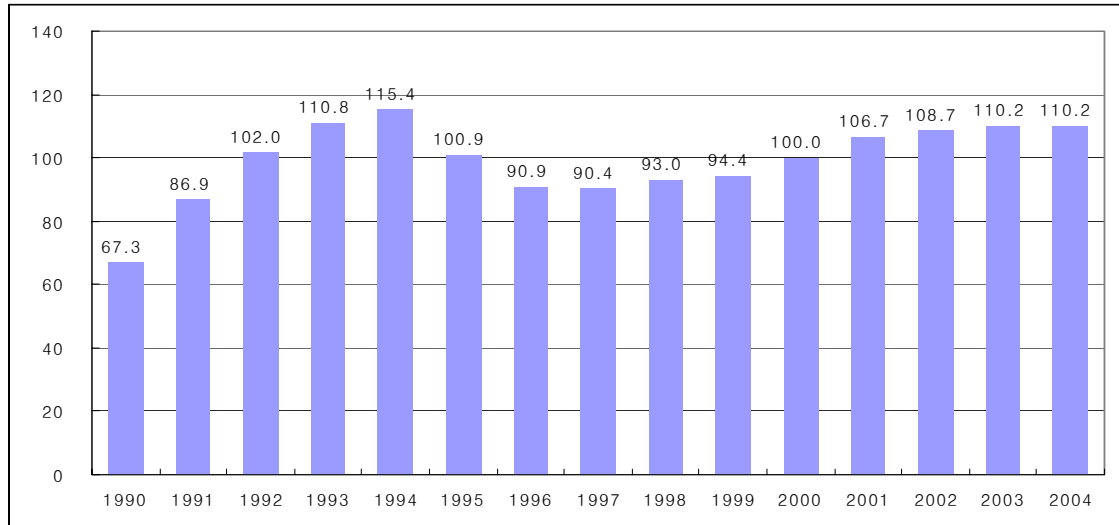
(단위:%)

	2004년 (1000명)	2004/94년 변화율(%)	농업, 임업, 수산업		2차 산업		서비스 산업	
			2004	1994	2004	1994	2004	1994
멕시코	41,272	27.2	15.9	25.8	25.0	22.2	59.1	52.1
미국	139,252	13.2	1.6	2.9	20.0	24.0	78.4	73.1
한국	22,557	13.6	8.1	12.6	27.5	33.6	64.4	53.8

자료: OECD, OECD in Figures - 2005 edition

<그림 2-6> 멕시코의 임금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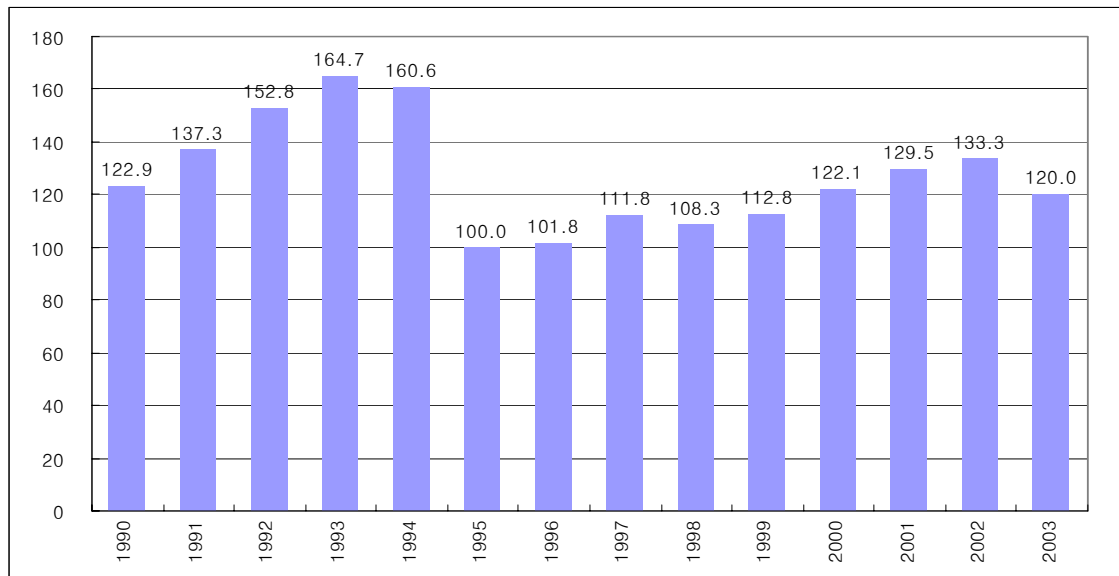
(단위: 2000=100)



자료: IMF, IFS CDROM 2005

<그림 2-7> 제조업부문 단위노동비용

(단위:1995=100)



자료: OECD, OECD FACTBOOK 2005

제3장 멕시코 쟁점사항 분석

- 본장에서는 주로 부정적 사례로 제시되었던 경제변화의 주요 쟁점사항(임금불평등, 소득불평등, 지역간불평등, 영화산업의 몰락)의 실체적 사실을 기존 연구논문의 결과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NAFTA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발생원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1.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

가. 임금불평등

- 멕시코 임금불평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여 보면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1996년 이후 안정상태 또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o NAFTA 이후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Robertson(2004)에 의하면, 비숙련노동집약산업 중심의 멕시코가 1986년부터 개방이 확대되면서, 사무엘슨-스톨퍼 정리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숙련노동집약적 상품가격 및 숙련노동임금이 증가(임금불평등 증가).
 - o 그러나 숙련노동이 풍부한 미국 및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하여 개방을 더욱 확대하면서 멕시코내 숙련노동집약적 상품가격 및 숙련노동임금이 감소하고 있음(임금불평등 감소).
- 기술진보와 무역자유화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의 실질임금 격차에 미친 영향을 분리하여 추정한 Esquivel and Rodrigues-Lopez(2003)에 의하면, 멕시코 임금불평등도 증가의 원인은 NAFTA 등 무역자유화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능편향적(skill-biased) 기술발전의 결과임
 - 1980년대 이래 급속한 기술진보 및 무역자유화가 동시에 진행
 - 무역자유화로 수출주도 외국 기업의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숙련 노동자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숙련 및 비숙련 노동간 임금격차가 확대됨.

- 따라서 실질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은 무역자유화의 긍정적 효과, 즉 개방의 긍정적 혜택이 멕시코 전산업으로 확산(trickle-down)되지 못한 결과임.

- NAFTA 이전(1988-1994년)

- 기술진보 효과를 제외할 경우 NFATA 이전 무역자유화의 증가는 임금 불평등도를 감소시키고 있음(-0.323), 즉 무역자유화의 결과로 실질임금 격차가 해소되고 있음. 그러나 기술진보 요인이 무역자유화에 의한 임금 불평등 감소 효과를 상쇄하면서 임금불평등도를 증가시켜(0.457), 전체적으로는 임금 불평등도가 소폭 상승함.

- NAFTA 이후(1994-2000년)

- 동 기간중 폐소화 위기로 경기침체를 경험
- 무역자유화 요인에 의한 임금불평등 증가 효과는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거의 0으로,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없음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키지 않음). 그러나 기술진보의 임금불평등도를 크게 증가시키면서(0.362), 임금불평등이 증가함.

- 종합적으로 볼 때 1988-2000 기간중 멕시코의 임금불평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주 원인이 기능편향적(skill-biased) 기술진보의 결과이지 무역자유화의 결과가 아님.

- 무역자유화 자체가 임금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으며, 1988-94 기간중에는 무역자유화가 임금불평등을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있음.
- 통계 및 Robertson(2004)에 의하면 각각 1990년대 중반부터 또는 NAFTA 이후 전체적인 임금불평등도는 감소하고 함.

<표 3-1> 숙련 및 미숙련 노동의 연평균 실질임금성장률 (추정치)

	무역자유화 효과		기술 진보 효과		합계	
	1988-94	1994-2000	1988-94	1994-2000	1988-94	1994-2000
저임금 노동자	0.103	-0.101	-0.209	-0.171	-0.107	-0.272
고임금 노동자	-0.220	-0.085	0.247	0.190	0.027	0.106
자본	0.013	-0.121	0.070	0.049	0.084	-0.073
임금차이 (고임금/저임금)	-0.323	0.016	0.457	0.362	0.134	0.378

자료: 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나. 소득불평등

□ 기존문헌에 의하면 1994년 이후 2000년 전까지 소득분배가 악화 내지 정체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나, NAFTA 이행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일부집단으로의 부의 편중문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무역자유화 혜택의 일부 분야 편중(예를들면 기능편향적 기술진보) 등 비NAFTA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멕시코의 소득 불균형 정도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나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³⁾는 45, 90년대 중반에는 52로 증가하였음.

o 그러나 2000년에는 지니계수가 48로 소득불균형이 감소하였음.

- 멕시코의 빈곤율⁴⁾과 빈곤갭(poverty gap)⁵⁾ 역시 90년 중반 이후 증가를 경험했으나 2000년대 들어 감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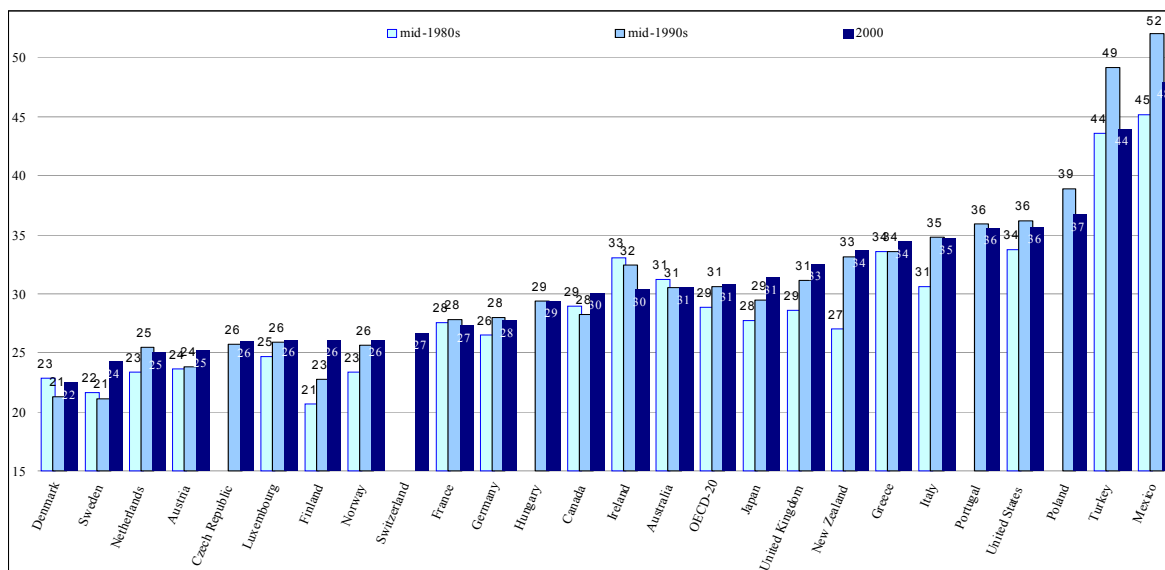
o 2000년 빈곤율과 빈곤갭은 80년대 중반 보다 낮은 수준임.

3) 지니(Gini) 계수는 빈부 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임. 0부터 1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함. 여기서 쓰인 값은 지니 계수에 100을 곱한 것임.

4) 빈곤율(poverty rate)은 전체 인구 소득의 중앙값(median)의 50%보다 낮은 가처분 소득을 받고 있는 개인의 비율을 측정한 것임.

5) 빈곤갭(poverty gap)은 빈곤층의 평균 임금과 전체 인구 소득의 중앙값(median)의 50% 값과의 차이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임.

<그림 3-1> OECD 국가의 소득 불평등도 (Gini 계수) 비교



자료: Förster, M. and M.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www.oecd.org/els/workingpapers).

<표 3-2> OECD 국가 빈곤률과 빈곤격차

	빈곤률(Poverty rate)			빈곤갭(Poverty gap)		
	1980중반	1990중반	2000	80중반	1990중반	2000
호주	12.2	9.3	11.2	24.2	31.5	26.7
오스트리아	6.1	7.4	9.3	27.6	20.7	30.0
벨기에	10.5	7.8	n.a.	30.0	31.1	n.a.
캐나다	11.6	9.5	10.3	19.8	29.9	32.0
체코	n.a.	4.3	4.3	n.a.	16.7	18.7
덴마크	5.3	3.8	4.3	22.1	25.6	24.1
핀란드	5.1	4.9	6.4	25.9	21.8	20.7
프랑스	8.0	7.5	7.0	32.9	23.4	25.8
독일	6.4	9.1	9.8	22.9	23.6	31.7
그리스	13.4	13.9	13.5	32.8	29.9	29.7
헝가리	n.a.	7.4	8.2	n.a.	22.4	24.9
아일랜드	10.6	11.0	15.4	23.0	12.0	24.0
이탈리아	10.3	14.2	12.9	29.9	37.2	36.5
일본	11.9	13.7	15.3	0.0	35.0	36.1
룩셈부르크	5.4	5.5	5.5	18.1	17.7	17.3
멕시코	20.7	21.7	20.3	36.4	37.1	36.0
네덜란드	3.1	6.3	6.0	32.4	27.3	29.4
뉴질랜드	5.8	7.8	10.4	34.2	29.1	23.3
노르웨이	6.9	8.0	6.3	22.5	28.1	28.2
폴란드	n.a.	9.9	9.8	n.a.	26.1	25.6
포르투갈	n.a.	14.6	13.7	n.a.	26.2	24.7
스페인	13.8	11.5	n.a.	41.4	36.0	n.a.
스웨덴	6.0	3.7	5.3	40.2	30.7	26.1
스위스	n.a.	8.6	6.7	n.a.	44.9	36.2

터키	16.4	16.2	15.9	29.2	28.6	27.8
영국	6.9	10.9	11.4	16.0	19.6	22.9
미국	17.9	16.7	17.1	33.6	34.1	34.7

자료: Förster and Mira D'Ercole (2005),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forthcoming, OECD, Paris.

2. 지역간 불평등

□ 멕시코의 지역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1985년 이전 및 이후의 경제중심축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임

- 1940-85년 기간중의 수입대체전략으로 제조업 중심벨트가 구축되었던 멕시코시티주변의 제조업 기업은, 무역자유화 이후 누적된 비효율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되면서 타격을 받게됨.

- o 무역자유화(최종재 수출 및 중간재 수입)로 멕시코시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전후방연관관계가 파괴됨.

- 반대로 경쟁력 및 효율성을 확보하게된 미국 접경지역으로 경제활동 중심이 이동하게 됨. 수출주도 외국기업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숙련노동임금이 상승함.

- o 이에따라 멕시코 시티의 제조업 고용비중은 급락하고 미국 접경지역의 고용비중은 크게 증가함.

- 무역자유화 이후, 특히 NAFTA 이후 북부농업도 크게 성장함.

- o 남부지역의 생계농과 달리 현대적 경작기술 및 관개수로를 확보하고 있는 북부지역 농가는 멕시코가 비교우위에 있는 과일 및 채소류 경작및 수출을 확대시키면서 북부의 농업성장을 견인함.

- o 그러나 전통적인 경작기술을 사용하며 rain-fed land 기반의 생계농 중심의 남부 곡물경작농의 경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악화, 시장개방 및 보호수단 철폐로 큰 타격을 받게됨(Chiquiar, 2004).

□ 결국 1985년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혜택이 북부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결과, 즉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으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한 결과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함.

- 따라서 멕시코의 지역간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NAFTA에서 찾는 것은 무리이며, 개방정책의 긍정적 효과의 확산 미흡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임.
- 1985년 개방 이전에는 멕시코시티 및 미국 국경지역의 1인당 GDP가 가장 높았으나, 1993년 이후 미국과의 국경 지방과 북부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경험 (Chiquiar, 2004; 참고 부록 표 2).
 - o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하였던 1940-85년 기간 중에는 멕시코 시티를 핵으로 한 중부지역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성장을 시현.
 - o 1985년 개방이후 경쟁력은 약했지만 수입대체전략으로 유지되었던 동지역에서의 제조업 및 농업 기반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경제성장 둔화를 경험함. 특히 멕시코 남부지방은 아주 저조한 경제 성장률을 보임 Neaver(2004).
 - o 반대로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이 양호했던 미국 국경지방과 북중앙 지역은 경제통합의 진전과 함께 NAFTA 체결 이후 급성장을 경험함.
- 1985년 이후 1인당 GDP가 크게 증가한 멕시코 주들의 특성은 초기조건이 양호하여 무역자유화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었다는 것임(Chiquiar, 2004).
- 1985년 무역자유화 이후 미국과 멕시코 기업들은 수송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국경 인접 지역과 북중앙 지역)에 기업활동을 집중시키게 되면서, 동 지역에서의 경제성장을 유도함.
- 인적 및 물적자본 등 초기 부존자원 축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거나, 인적 및 물적자본 축적이 용이한 주를 중심으로 GDP 증가를 경험.
- 또한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축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를 중심으로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혜택을 향유하게 됨.

<표 3-3> 멕시코 주의 주요지표 비교

	인적자본 (15세이상)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경제 지향성 (Economic Oreintation)		공자수(직원수 250명 이상)	
	평균 학교 교육	문맹률	철도/ 100km ² (km)	전화/ 100명	전기 공급 가정(%)	농업/ GDP	제조/ GDP	지역 / 전체 공장수	지역/ 전체 종 업원수
국가 전체	5.58	14.62	1.34	10.08	81.29	9.42	24.84	100.00	100.00
국경	6.33	6.84	1.14	12.48	86.38	10.01	24.15	34.49	39.86
Baja California	6.45	5.68	0.29	8.66	89.10	10.25	17.15	4.53	3.54
Coahuila	6.25	6.64	1.46	11.40	90.50	8.71	29.07	2.02	1.91
Chihuahua	5.85	7.44	1.08	11.14	80.95	15.99	18.29	12.52	16.25
Nnuevo León	7.00	5.91	1.69	16.60	92.75	1.70	37.14	9.73	9.97
Sonora	6.25	7.07	1.08	12.44	84.55	20.27	13.37	2.41	1.77
Tamaulipas	6.00	8.23	1.18	11.92	80.35	13.10	13.55	3.28	6.43
북부 중앙	5.20	12.52	1.15	6.93	77.31	19.34	17.44	6.07	4.94
Aguascalientes	5.70	8.79	3.91	8.98	89.55	7.64	27.63	1.35	1.17
Baja California Sur	6.35	6.59	0.00	18.57	82.15	12.31	7.60	0.00	0.00
Durango	5.25	8.20	1.00	6.25	81.20	21.84	23.02	1.83	1.22
Nayarit	5.25	13.88	1.44	5.51	85.15	20.81	17.10	0.00	0.00
San Luis Potosí	4.75	18.05	1.82	5.99	62.70	10.36	27.98	1.64	1.58
Sinaloa	5.60	11.83	2.11	8.81	82.85	25.71	10.05	0.87	0.88
Zacatecas	4.60	12.19	0.92	3.28	73.30	26.58	4.36	0.39	0.08
남부 중앙	4.77	18.77	2.45	7.19	76.84	12.24	23.60	16.67	18.80
Colima	5.75	11.00	3.83	10.42	88.15	18.06	6.13	0.00	0.00
Guanajato	4.25	20.11	3.52	6.51	79.55	12.52	22.14	2.22	1.69
Hidalgo	4.45	25.03	3.61	4.38	66.20	10.26	31.27	0.39	0.60
Jalisco	5.50	10.89	1.28	11.26	86.90	11.02	26.81	4.62	7.64
Michoacán	4.30	21.05	1.91	5.50	77.85	17.77	12.55	0.39	0.26
Morelos	5.70	14.23	5.54	10.24	90.55	7.74	26.29	0.29	0.39
Puebla	4.65	22.79	3.03	6.29	76.20	10.94	25.82	3.66	2.79
Querétaro	4.95	20.09	2.63	6.37	73.05	6.99	39.50	1.45	1.20
Tlaxcala	5.35	13.71	8.96	3.02	87.70	13.46	30.98	0.67	0.48
Veracruz	4.55	20.74	2.45	6.36	66.50	13.96	18.55	2.99	3.75
멕시코 시티	7.03	7.86	6.30	17.19	94.38	1.53	31.92	42.20	35.96
Distrito Fedral	7.90	4.91	21.16	27.27	98.35	0.23	27.53	18.30	15.64
México	6.05	11.17	5.27	7.20	89.85	3.99	40.20	23.89	20.33
남부	4.21	29.46	0.60	4.50	64.47	21.02	8.71	0.58	0.44
Chiapas	3.35	33.99	0.73	3.09	54.65	29.69	6.56	0.00	0.00
Guerrero	5.35	31.00	0.16	5.41	66.75	15.86	5.07	0.00	0.00
Oaxaca	3.65	31.53	0.73	2.69	60.80	25.11	11.16	0.29	0.19
Quintana Roo	5.20	14.58	0.00	9.93	77.20	8.54	5.69	0.00	0.00
Yucatán	4.75	17.43	1.58	8.25	84.20	10.21	16.36	0.29	0.25

자료: D.Chiquiar(2005), INEGI and NAFINSA

3. NAFTA 이후 마길라도라의 성장

□ 마길라도라

- 1965년 멕시코 정부는 공장생산의 100%가 수출된다는 조건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함.
 - o 미국은 멕시코에서 창출된 중간재 및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수입관세를 부과
- 자동차 제품, 전자 및 전기기기, 수송기기, 의류 등이 마길라도라의 중심 산업임(Sargent and Matthews, 2001)

□ NAFTA이후 마길라 산업은 급성장을 경험

- NAFTA 이행의 결과 수출가공구로서의 배타적 매력이 상실됨으로써 마길라도라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NAFTA 이후 급성장을 경험함.
 - o 1995년 전체 수출의 41%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는 46.5%의 수출비중을 기록함
 - o 특히 수출중심 조립공정의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마길라도라 제조업의 생산이 증가함.
-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 멕시코 접경지역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면서 마길라도라의 성장이 증가함.
 - o 1994년 멕시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8.4%에 불과했던 미국의 비중이 NAFTA 체결 이후 급증하면서, 1998년 25.5%, 2003년 20.1%를 기록함.

<표 3-4> 마길라도라의 무역액 및 무역 비중

(단위:백만달러, %)

		1986~93	1994	1995	1996 ~2000	2001~03	2004
무역액 (백만)	수출	13,196	26,564	32,678	55,596	77,620	87,832
	수입	9,978	20,984	27,560	44,294	58,444	68,624
비중 (%)	수출	34.3	43.6	41.1	43.8	48.1	46.5
	수입	25.9	26.4	38.0	34.4	34.6	34.8

자료:IMF IFS CDROM

- 마킬라도라의 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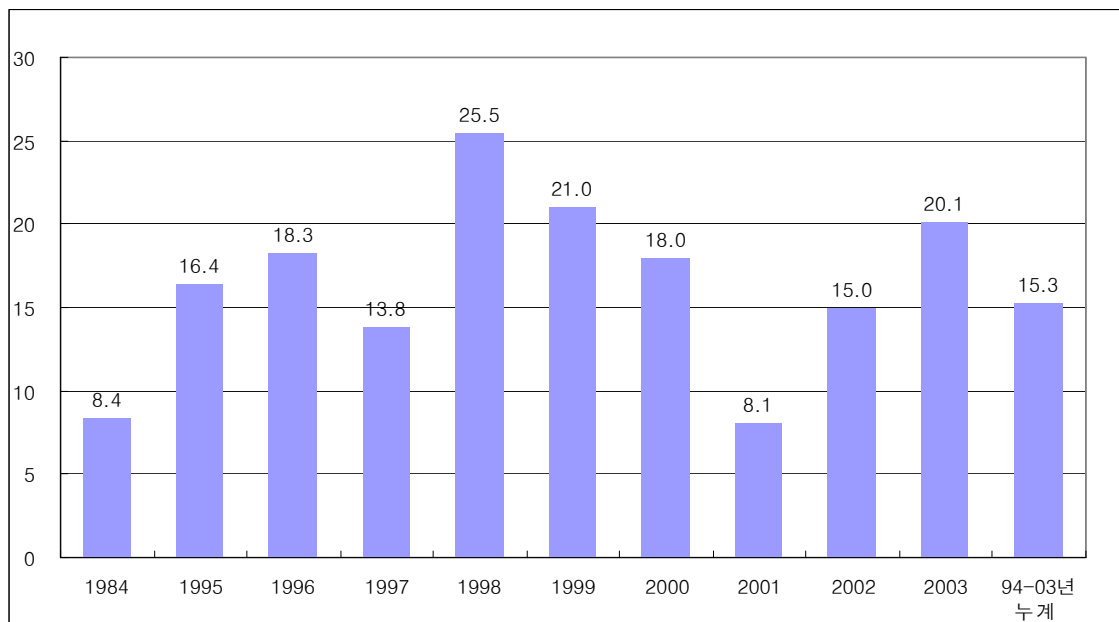
- o NAFTA 체결 직후인 1995년 마킬라도라 기업수는 2,265개로 65만명의 고용 및 327억 달러 수출(전체수출의 41.1%를 차지)를 담당했으나, 이후 5년 동안 마킬라도라 수는 3,655개로 증가했고, 고용은 2배로 증가했으며, 5년 동안 평균 총수출의 43.8%를 담당.
- o 멕시코 제조업 고용에서 마킬라도라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8.9%에서 2000년에는 36%로 증가함(Cypher, 2001).

□ NAFTA는 마킬라도라의 면세 혜택(수출가공구로서의 배타적 매력)을 제거하는 효과

- NAFTA 7년경과 후 마킬라도라 기업의 비 NAFTA 지역 수입중간재에 관세부과 규정으로 마킬라도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음.
- o 국내산 부품사용 증가와 최종재의 국내시장 판매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음.
- 그러나 예상과 달리 NAFTA 이후에도 마킬라기업의 중간재 조달패턴 (국내산 부품 사용증가)과 매출구조 변화(국내판매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Sargent and Matthews, 2001).

<그림 3-2> 對멕시코 FDI 마킬라도라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권기수(2005), 멕시코 상공부(SECOFI)

<표 3-5> 마길라도라의 고용자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4
공장수	120	454	578	789	1,924	2,265	3,655	2,811
종업원수	20,327	67,213	119,546	217,544	470,000	648,263	1,291,232	1,111,801

자료: 권기수(2005), 멕시코 통계청(INEGI)

□ 마길라도라 산업의 위기와 부활

- 2001년 발표된 안보 협정에 따라 국경 지역의 물품운송 저해, 2002이후 미국 경기 둔화, 중국의 급부상, NAFTA협정에 따른 마길라도라산업의 세계 혜택 축소, 9.11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침체를 면치 못 하였으며 다국적 기업들의 멕시코 이탈 현상 발생
 - 특히 전자 산업과 섬유산업은 중국과 중남미의 부상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음. 이로 인해 2000년 말부터 2002년 3월까지 마길라도라산업의 고용 감소인원만 약 27만명에 달하였고, 가전 업체와 섬유업체를 포함하여 약 300개의 기업이 중국 및 중미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였음(한국수출입은행, 2005).
- 그러나 2003년 이후 멕시코 정부의 노력과 임금 이외의 경쟁력 확보로 마길라도라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
 -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비 NA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자치단체 기업에 대한 토지 제공,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마길라도라 대외무역현대화프로그램(MOCIE)와 같은 멕시코 정부의 노력
 - 멕시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한 멕시코의 숙련된 노동자,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한 법률, 미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마길라도라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함(권기수, 2003).
 - 2004년에는 미국 경기회복 수출증가에 힘입어 마길라도라 산업에 고용된 총 근로자 수는 113만명으로 2003년에 비해 6.6% 증가, 특히 전기·전자 제조부문은 2000년의 실적을 회복한 몇 안 되는 분야로서 2004년도에 2003년 대비 9.9% 증가한 10만 4000명의 고용인원을 기록함. 평균근로자 임금수준 역시 2003년도 대비 1.6% 상승함 (생산직과 기술직 5.7%, 관리직 4.3% 상승). 또한 Sony, Sharp, JVC, Hitachi, Panasonic 등 25개 다국적 기업이 바하 칼리포니아 주 티후아나에 총 2억 9200만 달러가 투입되는 합작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으며 이로 인해 창출될

일자리 수는 15만 4000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한국수출입은행, 2005).

4. NAFATA 이후 멕시코 북부 농업의 성장

□ 1994년에 멕시코 농업부문의 대미 무역적자가 확대되었으나 1995년 외환 위기 이후 흑자로 전환되었음.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 대 멕시코 농산물 수출 증가를 예상했으나 반대의 결과가 발생함.

o 원인은 대 멕시코 신선야채 수입의 급증임.

- NAFTA 논의과정에서는 미국의 대 멕시코 수입관세율이 양국간 교역의 제일 결정요인으로 생각되었으나 NAFTA 이후 새로운 중요한 요인이 나타나 멕시코 농업의 성장을 견인함.

o NAFTA 이후 멕시코 농산물에 대한 수입수요와 멕시코 농산물 공급조건 변화를 통하여 양국간 농업교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양국간 임금상승률 및 실질소득의 차이, 농업기술변화, 양국 통화의 실질환율 변동 및 경기변동 등이었음.

□ 토마토, 오이, 호박(squash), 후추(bell peppers), 양파 등 신선야채 (미국수입시장에서의 멕시코의존도는 80%이상)에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이 급증한 원인

- NAFTA에 따른 관세인하라기 보다는 1994~95년 기간 중의 폐소화 평가절하와 이에 따른 멕시코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증가

- 보다 중요한 원인은 미국에서의 (경기상승에 따른) 멕시코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가임(Málaga et al, 2001).

□ 멕시코 채소류의 중요성

- 멕시코 채소류는 농업생산 비중 15%, 농업고용비중 18%를 담당

- 1970년대 이후 급성장을 지속하여 對 미국 수출이 120% 성장함. 멕시코

전체 농산물 수출의 40%를 차지함.

- Sinaloa주의 양호한 겨울기후와 저임금을 경쟁력으로 미국의 겨울 채소 시장에 공급함.
- Sinaloa주는 관개수로, 중규모, 민간 농장의 현대적 영농기술 이용, 현대적 마케팅 및 경영기술, 미국 유통업자와 금융·상업적 유대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으로의 고품질 채소 수출 및 프리미엄 유지를 가능토록 함.

□ 정책적 시사점

- 무역자유화의 직접적 효과보다 FTA의 간접효과, 즉 상대국의 실질소득, 실질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이 농산물 무역패턴 결정의 중요 요인임 (Málaga et al, 2001).

5. 멕시코 영화산업의 변화

□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로 80년대까지 황금기를 구가해 오던 멕시코의 영화산업은 90년 이후 국내 영화 제작편수의 급감함.

- 1930~40년대 멕시코의 여섯 번째로 큰 산업이자 3대 수출산업이었던 멕시코의 영화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영화산업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개입과 이에 따른 비효율성, 부정부패로 인해 침체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80년대 후반까지 100여편의 자국 영화를 만들면서 왕성한 활동을 함.
- 그러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멕시코 자국 영화 편수, 관람객의 감소 등 침체기를 겪음.
- 일부에서는 멕시코의 이같은 영화산업의 감소가 NAFTA와 스크린쿼터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비판함.

<표 3-6> 멕시코 영화 산업의 주요 사건 및 현황

시대	주요 사건 및 현황
1930~40년	멕시코 영화산업의 황금기 구가 · 멕시코 영화 산업은 멕시코에서 6번째로 큰 산업, 3위의 수출 산업 · 멕시코 영화와 영화배우들은 국제적인 칭송을 얻고 상업적으로도 성공
1950~60년	멕시코경제는 팽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나 영화산업은 정체 · 미국 사업가 젠킨스(William O.Jenkins)는 상영부문 실질적으로 장악, 흥행에 성공 가능한 영화만 제작, 이에 따라 원가가 낮으면서도 단순한 영화의 과잉 공급 발생
1970~80년 중반	멕시코 영화 산업의 중흥 도모 정책 추진 ·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ia- 1970~76년)대통령은 영화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폭적으로 지원. 이에 따라 영화산업에는 전례 없는 자금이 배정되어 영화전성기를 구가 · 대규모 정부 지원은 양질의 영화 제작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영화 제작사들의 자생력을 키우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차기 정부는 영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음
1980년 후반~90년 중반	카를로스 살리나스 대통령(Carlos Salinas de Gortari, 1988~94년)신자유주의정책에 따라 영화산업의 자유화 3대 영화산업 자유화 조치 1)영화산업의 민영화 2)영화시장의 규제 완화 3) 영화생산 및 배급에서의 공공 부문의 개입 축소 1992년 12월 「 영화영화법(Federal Film Law) 」을 제정 추RK적인 영화산업 자유화 조치 1) 영화요금 자유화 2) 스크린쿼터비율 축소 및 폐지 3) 어린이 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외한 상업용 영화의 경우 영화대사 처리를 자막으로만 국한한 조항 계속 유지
1990년대 후반~현재	멕시코 영화 산업 부활을 위한 정부의 영화산업 육성책 제정 「 신연방영화법(New Federal Film Law) 」의 도입 · 스크린 쿼터의 부활(10%) · 상업영화에 대한 더빙 금지 조항 계속 유지 · 영화산업육성기금 창설 민간기업들의 영화 산업 참여 증대

□ 멕시코 영화산업의 침체의 배경은 단순한 NAFTA만의 영향이 아니
NAFTA 이전의 강도 높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1994년 폐소와 위기로
인한 경제적 여파,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멕시코 영화 산업 구조와 질 낮
은 영화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급격한 자유화 조치

o 1988년 신자유주의시장 경제를 내세운 살리나스 정부의 집권에 의해 영

화 부문에 있어서도 민영화, 규제 완화 및 정부 지원금의 축소 등 시장 지향적 시스템의 도입. 1992년 12월에 연방영화법(Federal Film Law)를 실시하여 추사적인 자유화를 실시함.

- o 이러한 자유화 조치로 인하여 비효율적 구조와 미성숙한 멕시코의 영화 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멕시코 국내 자체 영화편수가 급격히 감소함.
- o 그러나 이러한 자유화 조치는 NAFTA에 의한 것이 아닌 멕시코 정부의 자발적인 정책이었음. NAFTA 협정시에는 30%의 스크린쿼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NAFTA Annex I (Reservations for Existing Measures and Liberalization Commitments) - Entertainment Services(Cinema) Thirty percent of the screen time of every theater, assessed on an annual basem may be reserved for films produced by Mexican persons either within or outside the territory of Mexico
--

- 1994년 폐소화 위기 이후 경제적 위기

- o NAFTA 체결과 함께 1994년 폐소화 위기는 영화산업 자유화 조치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멕시코 영화산업을 더욱 침체하게 만들었음.
- o 폐소화 위기에 따른 경제적 위기로 인해 1995년 멕시코 국산 영화 제작 편수는 14, 관객 수 역시 6천 2백 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함.

<표 3-7> 멕시코 영화 산업 추이

연도	국산 영화제작편수	스크린쿼터비율	극장관객수 (백만명)	총영화상영편수
1990	98	30%	-	434
1991	32	30%	-	239
1992	45	30%	134	446
1993	53	30%	103	334
1994	46	25%	82	343
1995	14	20%	62	205
1996	16	15%	80	200
1997	13	10%	95	190
1998	10	폐지	104	174
1999	22	폐지	120	19
2000	27	폐지	130	234
2001	17	10%	143	439
2002	14	10%	152	442
2005	50(예상치)	10%	-	-

자료: 중남미 주요국의 스크린쿼터제 운영 현황 자료 인용,
영화산업진흥위원회(2003),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www.terramedia.co.uk/law/quotas_and_leivies.htm
www.signonsandiego.com/news/mexico/20050826-1619-mexi

- 비효율성과 부정 부패의 멕시코 영화 산업 구조와 질 낮은 영화
 - o 정부의 중추적인 역할 아래 발전한 멕시코의 영화 산업은 1988년 영화 산업 자체의 부패가 만연하였음.
 - o 국영 영화제작업체는 행정 관료의 착복 및 저질의 재미없는 영화의 제작 등으로 비효율적, 비생산적인 경영으로 평가 되었으며 국영업체를 통한 영화의 배급 및 상영 또한 비효율성과 부패로 찌들어 있어서 상당수의 업체가가 도산해 있거나 거의 도산상태에 처해 있었음.
 - o 영화산업 관련 법률은 1949년 제정된 낡고 비효율적인 법이 전부였음.

□ 멕시코 영화산업의 부활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멕시코국민들의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멕시코 영화 산업이 부활함.
 - o 2001년 17편에 불과 했던 멕시코 자국 영화 제작 편수가 2005년 50여편으로 추정됨.
 - o “아모레스 페로스(Amores Perros)”, “이 투 마마(Y tu mama tambien)” 등 멕시코 신세대 감독들의 영화가 세계 영화제에서 주목 받음.
- 최근에는 정부 및 민간투자, 중남미 및 스페인 합작 제작 등이 멕시코 영화산업이 다시 부흥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김윤희, 2005).

제4장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변화에 대한 설문결과

1. 설문결과 요약

- NAFTA 이후 피해집단 또는 이익집단 각각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멕시코 각주의 정책담당자를 심층면접하여, 피해 또는 이익의 실체, 원인, 평가 및 권고사항을 조사함.
- 멕시코 주정부의 정책담당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변화의 실체와 원인, NAFTA 이행과 멕시코의 양극화·경기침체 등 사회부정적인 현상의 관계에 관한 견해 등을 파악하였음.
- 현지조사 지역
 - o Baja California Norte: 무역자유화 및 NAFTA로 제조업(마킬라도아)이 이익을 본 미국 접경지역의 주
 - o Guanajuato: 제조업이 타격을 받은 중남부 지역(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의 주
 - o Sinaloa: 농업부문에서 이익을 본 북부 지역(미국에 신선채소류 수출 농가 및 유통업체)의 주
 - o Chiapas: 농업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부 지역(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사용)의 주
- 인터뷰 대상자: 각 지방 정부 관리자
 - o Baja California Norte: Octavio J. Corona Flores (띠후아나市 경제개발부 대표), Manuel Rodríguez Monarrez (경제개발부 산업개발팀장)
 - o Guanajuato: Liliana Rojas Domínguez (과나후아또주 COFOCE 대외 무역진흥조정관 겸 국제실 실장), Daniel Melendez Sánchez (Leon市 경제개발부 제도개선과장)
 - o Sinaloa: Sergio Mario Arredondo (Sinaloa주 경제개발부 산학연계조정관), Erik C. Dieguez Contreras (경제개발부 경제분석관)
 - o Chiapas: Rubén Garrido Hernández (Chiapas 주 경제개발부 무역담당 차관)

□ NAFTA 이행이후 각주의 경제변화에 대해, 주정부 정책담당자들은 대체적으로 주별 특성에 입각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함.

- 교역(수출), 외국인투자(FDI) 증가, 고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
- o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들이 NAFTA 직후 도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웠다고 평가.
- o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 o 무역자유화 이전 보호주의 체제하에 주요 경공업 지역이었던 Guanajuato는 개방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1994년 이후 일부에서 나타난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NA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 정책의 추진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임.

- 1985년 이후 자유무역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 과거 장기적인 수입대체공업화 전략아래 안주해 온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약화 및 공동체 전통아래 뿌리 내린 농업구조 등 역사적으로 고착화 되어 온 구조적 문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함.
- o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자연적 현상으로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위기직전까지 내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 o 최근 제조업 부문에서의 어려움은 중국요인에 기인함.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을 볼 때 FTA가 아니었다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o 멕시코의 대미 의존적 교역 구조는 멕시코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 부족, 지리적 위치와 저렴한 노동비용,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 투자자의 증대 등이 주요 원인임.

□ 그러나 FTA를 비롯한 무역자유화 정책이 임금 및 실질소득 악화, 산업간 및 지역간 양극화 전개에 부분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평가함.

- 북부 수출산업(마킬라도라산업)과 중부 제조업 중심 산업(멕시코 공업 벨트, 과서 수입 대체 산업, 내수 산업), 또한 북부 농업(현대적 경작 기술과 관개 농업)과 남부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 기술 사용 농업)의 지역간 빈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그 근본원인이 NAFTA 등 무역자유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o 과거 제조업 중심지와 기업들의 도태, 전통적 농업 구조의 쇠퇴는 적자 생존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경쟁력 없는 부분의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전통적 1차 산업 중심의 남부 농업 지역 Chiapas는 NAFTA와는 별다른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 중심의 2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임.
- o 북미 시장의 엄격한 위생 기준과 수송비용으로 인해 북미 시장 대신 유럽과 중남미 지역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함.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 한-미 FTA 협상 권고사항

- FTA 협상과 관련하여 각 계 각종 의견수렴의 중요성과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을 강조함.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을 권고함.
-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시행을 권고함.

2. 주별 설문결과 내용

1)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 내에 발 생한 변화와 평가는?

□ NAFTA 발효 이후 남부 농업 지역인 Chiapas를 제외한 주에서 경제 성장률, 수출, 투자, 고용 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대체로 무역자유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Baja California Norte 주는 정치적으로 멕시코 연방 정부와 경제적으로 미국 California 주와 긴밀한 연관 유지를 유지하며 멕시코 총 무역액의 20%를 수출, 2005년도 무역 규모 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멕시코 내 제 2의 대미 무역 주로 성장
 - o 9.11 테러 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안보 정책, 경기 침체, NAFTA 규정에 따른 특혜 제도 폐지, 중국의 진출 등으로 마킬라도라산업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킬라도라 기업들의 고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에 있음.
 - o 제조업 이외에도 Sinaloa, Veracruz, Colima 등과 더불어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평가
 - o 장기간 보호주의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들이 NAFTA 직후 도산하

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으며 특히 1994년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멕시코 대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됨.

- Guanajuato 주의 경우 시장개방과 동시에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아래 안주했던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개방정책의 희생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최근 들어 FTA 수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o 경제 성장률과 고용 증가를 비롯하여 2005년도에는 1994년도 대비 5배의 수출 증가, 대미 수출 80억 달러를 기록하며 33개주 가운데 7위를 기록
 - o 경공업 분야가 FTA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 개방이 아닌 1994년 갑작스런 외환 위기와 90년대 후반 중국 요인에 의한 것으로 자본 확충, 기계화, 독자 디자인 개발, 자기 상표 개발, 유통망 확보 등에 힘썼던 분야는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여 미국, 유럽 시장으로 진출함.
 - o 농업의 경우 이미 30년 전부터 극심한 이농 현상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농산업 분야만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o 교역, 투자,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되지만 사회 일각에서 경쟁력 향상, 고용 증가, 성장률 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식할 필요는 있음.
- Sinaloa 주 역시 NAFTA 이후 다른 북부 주와 더불어 농업 수출이 크게 신장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구조가 크게 변화함.
 - o 1998년 제조업 13%, 농축산업 68%였던 수출구조는 2004년에 각각 40%, 51%로 변화함. 이는 대만,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섬유,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에 의한 것으로 2005년도에는 22,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
 - o 이러한 주 경제 구조로 인해 2005년에는 3.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는 5.1%의 성장이 예상되어 멕시코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 o 또한 수출잠재력이 높은 1차 상품의 경우 농산물이 대부분인데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8억 달러 수출, 90%가 채소류

로 특화되어 있음.

- 멕시코에 있어 시장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으며 2006년 현재 멕시코의 경제규모, 교역을 감안할 경우 시장 개방 정책을 지속되어야 함.
-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Chiapas 주의 경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저변에는 육상과 해상교통체제의 개선과 서비스산업과의 연계가 동반됨.
- 엄격한 위생검역기준과 중·북부 지역 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비용으로 인해 북미시장보다는 중남미 지역, 유럽과의 FTA 발효로 인해 농산물 수출 기회가 증가함.
- 종합적으로 볼 때 Chiapas의 이러한 변화는 NAFTA와는 별다른 관계가없이 발전한 것으로 평가
- FTA는 중요 국가 대외 정책이나 NAFTA의 경우 주 경제와 무관한 상황임.
-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나 직접적인 FTA의 영향은 아니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개발 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1994~1996년 멕시코 경제 상황 악화의 주요 원인 3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 ① NAFTA 이행
- ② 외환위기(페소화 절하)
-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잔존
-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 ⑥ 미국경기침체

□ 1994~96년도 멕시코 경제 상황 악화는 NAFTA와 별개의 문제로 주마다 답변 순서에 차이는 있었으나 주요 원인으로 페소화 절하에 따른 외환위기,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 효과의 누적,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의 모순 잔존과 정치사회적 불안정으로 지적하였음.

- Baja California Norte 주의 경우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 잔존, ② 외환위기(폐소화 절하) 순서로 답변
- Guanajuato 주의 경우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② 외환위기(폐소화 절하) 순서로 답변
- Sinaloa 주 ② 외환위기(폐소화 절하),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 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 잔존,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순서로 답변
- Chiapas 주는 ④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 잔존,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순서로 답변

3)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경제 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로 경제 성장, 무역과 외국인 투자 증대를 가장 큰 성과로 보았으며 기술 진보, 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유도 등을 제시

☐ NAFTA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양극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음.

- Baja California Norte 주, Guanajuato 주의 경우 부정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Sinaloa 주의 경우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으로 오는 양극화 현상, Chiapas 주의 경우 수출 관련 산업의 지나친 지역 편중으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빈민화 확산, 이농 및 농촌 사회의 공동화 현상을 언급함.

4) 1985년 이후의 무역 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NAFTA가 아닌 멕시코 경제 정책의 부재,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진 이후 나타난 미국 경제의 침체, 세계 경제의 침체로 보는 것으로 조사됨

- Baja California Norte 주는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FTA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 정책의 부재라고 평가

o 2000년 대통령 선거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여야대소의 정국에서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각종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음.

o 구조 개혁 정책 실행의 실패에 따라 사회 불안정, 특히 고용창출 미흡

- Guanajuato 주의 경우 FTA가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NAFTA의 주된 성과가 출범 초기보다는 현재 줄어들고 있는 한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을 전망함.

- Sinaloa 주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NAFTA로 인해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긴밀해진 결과 나타난 경기 침체를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답변함.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결과로 생각하지는 않았음.

o 미국 경기에 동조한 경기 침체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Sinaloa와 같이 미국 경기에 민감한 마킬라도라 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음.

- Chiapas 주의 경우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의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를 당하거나 위기 직전까지 내 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라고 답변함.

5)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 지역 수출 산업(마킬라도라 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시(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북부 수출 산업과 중부 제조업 중심 산업의 지역간 빈부 격차가 심화된 것은 인정하나 그 원인은 NAFT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산업육성정책을 위한 공공 정책의 부재, 비경쟁 분야와 기업들의 자연적 퇴출로 받아들이는 평가가 지배적임

- Baja California Norte주는 지역간 양극화 및 그에 따른 빈곤 등 사회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나 FTA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공공정책(산업육성정책)을 통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의 부재임을 지적
 -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결합으로 인해 연방정부의 정책들과 새로운 공공정책들이 북부지역을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나 총인구의 70%가 밀집한 중부 지역에서 실업, 교육, 보건 등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연방 및 주 정부들은 사회정책은 물론 산업육성정책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남부지역 역시 Quintana Roo 주를 제외한 Chiapas, Tabasco, Yucatam 등 다른 지역들은 공공정책(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Guanajuato주 역시 양극화 현상이 멕시코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나 이는 현재 FTA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FTA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희생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연방정부 및 지방 정부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Sinaloa주 역시 지역간 격차는 세계화의 두 얼굴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지리적인 이점을 지닌 북주 지역, 경쟁력과 효율성을 갖춘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대외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답변함.
 - 그러나 비경쟁적 부분의 자연 도태는 자유화를 추진하지 않더라도 일어났을 현상이며 피해자들을 구제할 지역균형개발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중소기업지원정책 등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방안들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또한 멕시코의 자유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며 고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 산업의 해외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실현, 고급 인력양성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함.

- Chiapas 주 역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된 점은 인정하나 NAFTA 이전부터 북부지역은 비용 측면의 이점으로 마킬라도라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활동의 중심지였음.
 - o 또한 과거 제조업 중심지 혹은 기업들의 도태는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경쟁력 없는 부분의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o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려고 최근 정부가 노력하고 있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수출, 현대적 경작 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 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 기술 사용, 곡물, 빗물 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역간 농업 발전 격차 역시 무역자유화의 부정적 결과가 아닌 멕시코의 전통적인 농업 구조에 의한 문제점인 것으로 지역별 차별화 농업 지원 정책을 비롯한 영농 규모의 대형화, 자본지원, 영농기술 현대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Baja California Norte주는 지역간 농업 발전의 격차의 원인은 FTA가 아닌 토지소유제도, 영농방법, 작물 등 전통적이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연방정부는 방기되어 있는 멕시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옥수수, 수수, 두류 등 각종 작물의 적정 재배, 농지 개량, 영농기술 습득 등과 같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함.
 - o 32개 지역의 특징을 감안한 각 지역별 농촌 정책 수립, 시행 여건 조성 이 시급함.
- Guanajuato 주는 농업 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시장 개방보다는 멕시코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옥수수 등 생계농의 경우 지원 정책 등과 관계없이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이라 답변함.
- Sinaloa 주 역시 지역별, 농가별, 작물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NAFTA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멕시코의 농업 및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그 실질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었음.

- o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지리적 이점과 미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작물을 재배 수출하는 북부지역의 경우 수혜자로 소규모 곡물 생산자의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전락
- o 수혜자의 경우 자본과 기술, 작물 선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곡물 재배자의 경우 전통적인 영농방법과 영농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생계농이었음.
- o 농촌사회의 소득불균형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것으로 농촌의 자연적 구조조정의 결과가 누적되어 온 것이며 영농규모의 대형화, 자본 지원, 영농 기술 고도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함.

- Chiapas주 역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농 및 공동화 심화가 농촌사회의 불안정을 가중시켰지만 무역자유화 자체가 지역간 농업 발전에 장애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함.

- o 농촌지역의 역사적으로 구축되어온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으로 비경쟁적인 분야의 자연적인 퇴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 그 공백을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농산업 분야가 대체하고 있음.
- o Chiapas가 NAFTA 이후 최악의 농촌사회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최근에는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개선된 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비대칭성을 줄이고 있음.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유무역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가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7)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 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 대미 의존적 교역 구조의 1차적 원인은 멕시코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 부족이었으며 지리적 위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다른 국가와의 FTA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이 제시됨

- Baja California Norte 주는 NAFTA 이후 12개의 FTA를 추가로 체결하여

시장 다각화에 노력한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의 부족으로 대미 수출이 한때 멕시코 수출의 88%까지 차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가 심화되었다고 답변

- o 대미의존심화는 양국간 정치적 협력관계가 악화되었거나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멕시코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o 수출시장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기업들은 FTA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진출의 적극적인 자세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명한 기준, 고기술, 고급 인력 양성 등의 노력이 요구됨.

- Guanajuato 주 역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변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기업들의 습관 혹은 문화에 1차적인 원인이 있으며 수출의 경우 많은 부분 재수입을 전제로 한 미국 투자가들과 미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의 증가도 주요한 요인으로 평가함.

- o 미국 경제의 의존성 증대는 수출 및 투자의 극대화를 가져왔으나 미국 경제 문제 발생 시 그 효과가 멕시코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됨.
- o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FTA를 활용하여 유럽과 MERCOSUR, 중남미 지역의 주요 시장으로의 진출이 필요함.

- Sinaloa 주 역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FTA의 장점을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한데 원인있다고 평가함.

- o 의존성의 증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으로 상대국의 경기변동에 따라 동반적으로 경기 변동을 겪으며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부분 독립성을 훼손당한다는 것임.

- Chiapas 주도 대미 의존적 교역 구조의 원인을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 비용,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미국 시장 진출에 익숙한 멕시코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의지 부족이라고 평가함.

- o 북미시장 경제 효과의 동조화현상은 수출시장의 편중화, 수출액 증대의 한계 등으로 NAFTA 외에 체결한 FTA가 주는 혜택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8)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FTA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에 견해는?

- 멕시코와 한국의 경제 발전사, 지리, 문화, 경제 규모 및 구조, 산업 경쟁력 등의 차이를 감안할 때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이 멕시코와 같은 경제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빈약하고 비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 Baja California Norte 주는 한국이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훨씬 성숙되어 있으므로 NAFTA의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함.
 - o FTA 협상과 관련한 각 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함.
- Guanajuato 주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NAFTA 이후 멕시코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와 한국이 NAFTA 체결 직전의 멕시코 보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조건을 감안할 경우 한미FTA 체결시 한국이 멕시코와 같은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특히 경제위기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함.
 - o 1994~96년 멕시코 경제난은 FTA가 아닌 연방정부의 무능과 금융체제의 취약성 등이 원인이었음.
- Sinaloa 주 역시 멕시코의 경제 위기는 FTA 체결과는 아무 관련 없는 것으로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한국경제가 멕시코 사례와 같은 진로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함.
- Chiapas 주도 경제 규모, 산업경쟁력, 거시경제 상황, 시대, 문화, 지리 등에서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한국과 멕시코 경제가 미국과 FTA 체결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근거도 취약하다고 답변함.
 - o FTA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협상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표 4-1> 설문결과 정리 요약

	Baja California Norte	Guanajuato	Sinaloa	Chiapas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 이후 발생한 변화와 평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받음 - 정치적으로 멕시코 연방정부와 경제적으로 미국 California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 - 멕시코 총무역액의 20% 수출, 2005년 무역규모 250억 달러로 멕시코 제 2의 대미 무역주로 성장함. - 기업들의 신진기술 도입, 비용 절감 등 자생력을 키움. - 1994년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멕시코 대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계기가 됨.	시장 개방과 동시에 비경쟁기업들이 퇴출되면서 개방정책의 희생지역으로 알려졌으나 GM과 같은 자동차 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로 인해 FTA 수혜자로 평가 - 경제성장률과 고용 증가 - 대미 수출 80억 달러를 기록하며 33개주 가운데 7위를 기록함. -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경쟁력 향상, 고용증가,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음.	농업 수출의 신장과 더불어 최근 들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구조가 변화 - 1998년 제조업 13%, 농축산업 68% → 2004년 제조업 40%, 농축산업 51% - 2005년 3.7%, 2006년에는 5.1%의 성장이 예상되어 멕시코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연간 8억 달러의 농산물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90%가 채소류로 특화됨. - 개방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멕시코의 경제적 성과를 감안할 경우 지속되어야함.	NAFTA와는 상관없이 전통적 농업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의 성장과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 - 엄격한 위생 검역기준과 수송비용으로 인해 북미 시장 대신 유럽과 남미 시장으로 수출 활동을 모색함. - FTA는 중요 국가 대외 정책이나 NAFTA의 경우 주 경제와 무관한 상황임. - 양극화 현상이 원인이 존재하나 FTA의 영향이 아니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1994년~1996년 멕시코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 3가지 (보기 6개 중 순서대로 택함)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무역자유화효과와 누적 ④ 1985년 이전 70여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 (수입대체공업화)체제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와 누적 ② 외환위기(폐소화절하)	② 외환위기(폐소화절하) ④ 1985년 이전 70여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 잔존	④ 1985년 이전 70여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체제 모순 잔존 ③ 1985년부터 진행되어 온

NAFTA 등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잔존 ② 외환위기(폐소화 결하)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무역자유화 효과의 누적 ⑤ 정치사회적 불안정
NAFTA 등 FTA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긍정적 효과> - 교역증가 - 외국인 투자 증대 - 고용 창출 <부정적 효과> - 언급하지 않음	<긍정적 효과> - 교역 및 투자 증대 - 경제 성장을 - 기술 진보 <부정적 효과> - 무응답	<긍정적 효과> - 규모 경제 및 경제 성장 - 교역 및 투자 증대 <부정적 효과> -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양극화 현상	<긍정적 효과> - 교역 및 투자 증대 - 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부정적 효과> - 도시 빈민화 확산 - 이농 및 농촌사회 공동화 현상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한 평가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경제 발전을 위한 각종 구조 개혁 정책의 실패가 원인임.	동의하지 않으나 NAFTA의 주된 성과가 출범 초기보다 현재 줄어들고 있는 한계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나 NAFTA로 인해 미국경제와의 긴밀한 관계 후 나타난 경기침체가 한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결과로 생각하지는 않음.	동의하지 않으며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은 세계 경제 침체의 따른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 위기를 당하거나 위기 직전까지 몰린 다른 개도국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NAFTA 등 무역자유화가 북부지역 수출 산업과 중부 제조업 중심 지역 간의 지역별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견해에 대한 평가	지역간 양극화 현상은 인정하나 FTA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공공정책을 통한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 부재가 원인임.	양극화 현상은 인정하나 현재 FTA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FTA가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임.	지역간 격차는 세계화의 두 얼굴이며 비경제적 부분의 도태는 자유화와 상관없이 일어났을 현상임.	지역별 격차의 심화는 인정하나 과거 제조업 중심지 혹은 기업들의 도태는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경쟁력 없는 부분의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NAFTA 등	NAFTA가 아닌 토지 소유제도,	농업 부분의 양극화 현상은	진적이 원인이 NAFTA에	무역자유화가 지역간 농업

자유무역화가 북부지역 농업과 남부지역농업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는 견해에 대한 평가	영농방법, 작물 등 전통적 농업 구조에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음.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임.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멕시코 농업 및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	발전의 장애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분야의 퇴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멕시코의 대미의존 적 교역 구조의 원 인	- 멕시코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 부족. - 지리적 위치. -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증가. - 다른 국가와의 FTA를 활용하지 못함.	- 미국 일변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기업들의 습관. - 재수입을 전제로 한 미국 투자가와 미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 증가	-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FTA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함.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을 볼 때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 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멕시코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의지 부족. - 저렴한 노동 비용과 지리적 이점으로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증가.
NAFTA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 방향이 유사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평가	수출드라이브 한국과 보호주의 멕시코 경제 발전사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한국은 NAFTA 체결 당시 멕시코보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NAFTA 이후 나타난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임.	한국경제는 NAFTA 협상 시점의 멕시코 경제보다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1994~96년 멕시코 경제난은 FTA와 무관한 것으로 한미FTA 체결 시 한국이 멕시코와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멕시코의 경제 위기는 FTA 체결과 무관한 것으로 한국 경제가 멕시코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전망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경제 규모 및 구조, 산업 경쟁력, 시대, 문화, 지리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볼 때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가 FTA 체결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은 무의하며 근거도 취약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994년 멕시코의 NAFTA 가입은 1985년 이후 추진되어온 무역자유화 확대의 한 정점으로 20년 개방정책을 거스를 수 없게 만든 일대 모멘텀으로(Gould, 1998), 이후 멕시코는 경제 성장을 상승, 무역량 및 FDI 유입량 증가, 고용 증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
 -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대부분의 멕시코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운 것으로 나타남. 또한 NAFTA 이행이 1994년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출이 25%,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40% 감소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음(Lederman, Maloney and Serven, 2003)
 - 또한 NAFTA로 멕시코 제조업이 미국의 기술 진보를 빨리 습득하게 되었고, 무역 증가로 멕시코 빈곤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
- 그러나 NAFTA 발효와 함께 동시에 발생한 정치사회적 혼란 및 폐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로 멕시코는 1990년대 중반 실질소득 하락, 실업률 증가, 곡물 생계농가의 타격 등을 경험함. 또한 1985년 이후 무역자유화 정책 실시이후 임금불평등 및 지역간 불균형을 경험
 - 일부에서는 이같은 부정적 현상들이 시간적으로 1994년 이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NAFTA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악화의 원인을 NAFTA에서 찾기는 무리가 있음(Esquivel and Rodrigues-Lopez, 2003;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4장 전문가 설문내용).
 - 멕시코 정책담당자들은 NAFTA가 멕시코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 견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 멕시코의 경우 FTA이전 및 이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지 못한 분야에서, 또한 FTA의 잠재적 이익실현 및 피해 최소화

화를 위한 국내조정정책이 미흡했던 분야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음.

- 비경쟁적 제조업 및 농업 생계농의 피해는 시장개방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부재, 세계화된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방정부의 분배정책 한계, 지방정부의 무능 및 부패, 정치사회적 불안정, 반복적인 경제위기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함.

□ 쟁점사항에 대한 이해

- 멕시코의 지역간 소득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1985년 이전 및 이후의 경제 중심축이 변화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지역간 불평등의 직접적 원인을 NAFTA에서 찾는 것은 무리임.
 - 북부 수출산업(마길라도라산업)과 중부 제조업 중심 산업(멕시코 공업 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또한 북부 농업(현대적 경작 기술과 관개 농업)과 남부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 기술 사용 농업)의 지역간 빈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1985년 이후 지속되어온 무역자유화 정책의 경제적 혜택이 북부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결과, 즉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문제 및 국내조정정책의 미흡으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여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지 NAFTA 등 무역자유화에 의한 것은 아님.
 - 농업기반의 피해지역인 Chiapas주의 경우 NAFTA와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산업 중심의 2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음.
- 1995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은 NAFTA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금융위기에 의한 것임 (Lederman, Maloney and Servén, 2003).
 - 멕시코 임금불평등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1996년 이후 안정상태 또는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NAFTA 이후 임금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무역자유화 자체가 임금불평등도를 심화시켰다는 증거는 없음 (Rodrigues-Lopez, 2003).
- 마길라도라는 NAFTA 이행에 따른 수출가공구로서의 배타적 매력(면세혜

택)이 상실됨으로써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NAFTA 이후 급성장을 경험함.

- 미국은 NAFTA 이행으로 대 멕시코 농산물 수출 증가를 예상했으나 반대로 멕시코의 대 미국 신선야채 수출이 급증함.

- o 무역자유화의 직접적 효과(관세인하)보다 FTA의 간접효과, 즉 상대국의 실질소득, 실질임금 및 생산성 증가율이 농산물 무역패턴 결정의 주요 요인임(Málaga et al, 2001).

- 멕시코의 영화산업의 침체 역시 단순한 NAFTA의 영향이 아니라, NAFTA 이전의 강도 높은 자발적 자유화 조치, 1994년 폐소화 위기로 인한 경제적 여파,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멕시코 영화 산업의 구조와 질 낮은 영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미국경제에 대한 종속은 FTA에 의해 심화된 것이 아니라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에 의해 심화된 것이라고 평가

- o 제조업에서의 미국-멕시코간 산업내 교역의 증진 및 멕시코 농산물 수출의 미국시장 의존도 증가가 양국간 경기동조화의 주요원인임(Hufbauer and Schott, 2005).

□ NAFTA 체결이 멕시코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멕시코가 NAFTA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실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Kondonassis and Malliaris(1996)에 의하면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관세인하효과보다 시장확대효과에 의존함.

- o 경제통합에 따른 시장규모의 확대는 (1) 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발전·제도개선·경영능력 향상·숙련노동 축적 등 외부경제를 발생시킴으로써, (2) 회원국간 가격 및 비가격 경쟁을 격화시켜 결과적으로 효율성·생산성·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

- o 즉, 시장통합이 (1) 규모의 경제 및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정도에 따라, (2) 경쟁심화의 결과 효율성·생산성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경제적 효

과의 크기가 달라짐.

- 교육으로 대표되는 인적자본 축적의 불충분, 비숙련노동 실업 풀의 존재 및 R&D 투자로 대표되는 기술능력 부족 등 멕시코 초기조건의 한계 또는 장애요인으로, NAFTA 시장통합이 제공하는 잠재적 이익발생 메카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함(Chiquiar, 2004; Ramirez, 2003; Hufbauer and Schott, 2005).
 - o 즉 인적자본 및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시장확대 및 외부효과가 제공하는 기술발전, 제도개선, 경영능력 향상, 품질개선의 기회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함.⁶⁾
- 4장의 멕시코 정책담당자들은 전술한 NAFTA 관련 국내조정정책의 문제점 및 역사적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에 NAFTA의 효과가 잠재적 크기보다 작았음을 시사하고 있음.
 - o 멕시코의 경우 70여년에 걸친 경제정책 실패, 채무불이행, 부패 등의 여파가 1985년 무역자유화 이행 이후는 물론 NAFTA 이후에도 잔존하고 있어, FTA에 따른 이익 발생 메카니즘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FTA의 긍정적 효과도 잠재적 크기만큼 발생하고 있지 못함(멕시코 정책담당자 설문조사, Ramirez 2003).
- 경제통합 효과의 크기 및 발생체계에 대한 위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우 FTA를 통한 시장확대의 효과발생 체계 및 초기조건이 NAFTA 당시 멕시코 경우보다 훨씬 나은 여건에 있으며, 따라서 경제통합의 잠재적 이익이 보다 크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임
- 멕시코에서 NAFTA 체결의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인적자본 축적에 있어,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음.
 - o 멕시코의 평균 교육연한이 11년인데 비해, 한국은 14.6년임. 또한 멕시코 노동자의 1/3이 초등학교 졸 이하임(이상 Gruben, 2000).
 - o 상대적으로 낮은 멕시코의 교육연한(schooling years)이 선진기술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국 추격(catching-up)의 장애요인임과 동시에, 멕

6) OECD(2004)는 멕시코의 잠재성장률 실현을 위한 조치로 교육 및 인프라스트럭처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부문에서의 경쟁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제안하고 있음.

시코내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 멕시코에서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기술능력에 있어, 우리나라는 멕시코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음.
 - o 멕시코의 R&D-GDP 비중(한나라의 기술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변수)을 보면 1991년 0.22%에서 1995년 0.31%, 1999년 0.43%로 소폭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한국은 2001년 현재 3%에 도달하고 있어 양국의 기술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 o 특허건수 및 노동생산성(한나라의 기술수준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변수)을 보더라도 한국은 멕시코를 크게 압도하고 있음.
 - o 미국과의 FTA에서 FTA의 잠재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초기조건에서 한국과 멕시코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멕시코에서 잠재적 이익실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역사적 구조적 문제점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음.
 - o 우리나라의 경우 멕시코와 달리 비현대적 전통부문의 부재 및 소득 불평등도의 상대적 약화, 제조업 등 기반산업에서의 국제경쟁력 보유, 멕시코와 같은 비효율-저경쟁력의 부실기업 미보유, 광범한 미숙련 노동력 풀의 부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응집력 등의 특성이 있어, FTA의 긍정적 효과실현(규모의 경제 및 전문화, 효율성·생산성·경쟁력의 개선정도)의 잠재력이 멕시코를 능가할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멕시코가 경험한 장애요인의 하나인 FTA를 전후한 국내조정정책상의 문제점 측면에 대해서 양국의 여건을 비교하기는 쉽지 않음.
 - o 단, 구조적 역사적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국내조정정책의 대상, 범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며, 따라서 조정정책도 마찰이 작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 멕시코 정책 담당자들은 NAFTA 이행 직후 멕시코에서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 등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라고 지적
- 멕시코에서도 NAFTA 이후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음을 강조함.

- 멕시코와 비교하여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 있으며, 기술과 제도도 멕시코보다 선진화된 것으로 평가함.

□ 2001-03 기간중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사용하여 한국과 멕시코의 대세계 경쟁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주요 제조업 부문에서 멕시코의 경쟁력을 압도하고 있음(부록 표 3 참조).

- 멕시코의 RCA지수가 한국 RCA지수보다 높은 산업은 마킬라도라 산업인 자동차 및 기계장비 부문에 불과함.

- o 동 산업에서도 기술경쟁력은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이 멕시코를 압도하고 있음. 멕시코는 동 산업에서의 저임금·노동집약적 공정에서만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기술·마케팅 능력 및 국내분업연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음.

- 멕시코의 NAFTA 이행경험에 기초하여 한-미 FTA가 우리 제조업에 미칠 긍정적 파급효과를 제한하는 것은, 한국과 멕시코의 산업 및 주력부문의 경쟁력 격차 및 수용능력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주장임.

□ 멕시코의 경험을 볼 때 FTA 협상과정에서의 의견수렴 및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노력이 대단히 중요함.

-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o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 FTA 이행과정에서의 피해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구상이 중요함.

<표 5-1> 교육 성과

	독해, 과학 및 수학 능력 성과 (15세, 2003년)			성인 인구의 교육 성과율 (25세-26세)	
	독해 능력 평균	수학적 능력 평균	과학 능력 평균	고교수준교육 (Upper secondary or higher attainment)	고등교육 (Tertiary attainment: 학사, 석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나 고급 연구 프로그램)
한국	534.1	542.2	538.4	70.8	18.5

멕시코	399.7	385.2	404.9	12.6	2.5
미국	495.2	482.9	491.3	87.3	29

자료: OECD, OECD in Figures - 2005 edition

<표 5-2>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단위:%)

	1991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1.92	2.50	2.60	2.69	2.55	2.47	2.65	2.96
멕시코	0.22	0.31	0.31	0.34	0.38	0.43	0.37*	0.39 *
미국	2.72	2.51	2.55	2.58	2.60	2.65	2.72	2.82

자료:OECD FACTBOOK 2005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표 5-3> 특허권수

(단위: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한국	65	93	119	168	213	327	324	387	462	459	478
멕시코	7	6	5	6	5	12	8	11	12	11	15
미국	11,165	10,217	10,568	10,531	11,095	12,312	14,726	14,763	14,810	15,079	14,985

자료:OECD FACTBOOK 2005

<표 5-4> 노동 생산성 증가율

(단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한국	5.4	6.4	5.0	3.0	-1.1	8.3	4.4	1.9	4.2	3.3	3.3
멕시코	0.9	-8.1	1.3	0.3	2.2	2.7	4.7	-0.3	-2.0	0.1	2.6
미국	1.3	0.3	2.0	2.3	2.1	2.8	2.3	1.0	3.7	3.4	3.7

자료:OECD FACTBOOK 2005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권기수. 2005. 멕시코 마킬라도라(Maquiladora)산업; NAFTA의 최대 수혜자. 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 9권 6호(통권 43호)
- 김원호 외. 2000.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원호 외. 2004.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0년에 대한 영향평가와 우리나라 FTA 정책에서의 시사점. 정책연구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윤희. 2005.11. 멕시코 영화 시장 동향 및 한국 영화 진출 확대 방안. KOTRA. 멕시코 무역관
- 문남권. 2005. NAFTA와 멕시코 경제.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 제 9권 6호(통권 43호)
- 박순찬 외. 2004. FTA의 득과 실 사례 중심으로. 정책자료 04-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2006.2. 중남미 주요국의 스크린 쿼터제 운영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엄부영·강정실. 2004. 멕시코의 NAFTA 가입 이후 산업경쟁력 변화 분석. FTA 연구시리즈 0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05.9. 멕시코 국가 현황 및 진출 방안. Country Report 2005-3

[영문 자료]

-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7(1): 31-41.
- Avery, William P. 1996. "American Agriculture and Trade Policy-Making: Two-Level Bargaining in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Policy Science* 29 (1996): 113-136.
- Chiquiar, Daniel. 2005. Why Mexico's regional income convergence broke dow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7 pp. 257-275
- Cypher, James. M. 2001. Developing disarticulation withing the Mexican economy. *Latin Amercian Perspectives* Vol.28 No.3 pp.11-37
- Esquivel, Gerardo and José Antonio Rodríguez-López. 2003. Technology, trade, and wage inequality in Mexico before and after NAFTA.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 pp.543-565
- Hufbauer, Gary Clyde and Jeffery J. Schott. 2005. NAFTA Revisite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Ibarra-Yunez, Alejandro. 2003. Spaghetti regionalism or strategic foreign trade: some evidence for Mexico.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72 pp.567-584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CD ROM 2005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CD ROM 2005
- Kondonassis, Alex J. and A.G. Malliaris. 1996. "NAFTA: Old and New
- Lederman, Daniel, William F. Maloney and Luis Servén. 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n and Caribbean(LAC) Countries: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The World Bank
- Lessons from Theory and Practice with Economic Integration", *North*
- Málaga, Jaime E., Gray W. Williams and Stephen W. Fuller. 2001. US-Mexico fresh vegetable: the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gricultural Economics* 26 pp.45-55
- Nevaer, Louis E. V. 2004. *NAFTA's Second Decade: Assessing Opportunities in the Mexican and Canadian Markets*. South-Western.
- OECD. 2004. Economic Surveys: Mexico. OECD
- OECD. Country Statistical Profile 2005
- OECD. FACTBOOK 2005
- Ramírez, Miguel D. 2003. Mexico under NAFTA: a critical assessment.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43 pp.863-892
- Robertson, Raymond. 2004. Relative prices and wage inequality: evidence from Mexico.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64 pp. 387-409
- Sargent, John and Linda Matthews. 2001. Combining Export Processing Zones and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s: Lessons From the Mexican Experience. *World Development* Vol. 29 No. 10 pp. 1739-1752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 Weisbrot, Mark, David Rosnick and Dean Baker. 2004. Getting Mexico to Grow With NAFTA: The World Bank's Analysis.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World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5
- www.unctad.org/fdistatistics

<부록> 멕시코 현지 설문 결과 내용

1. Baja California Norte

- ◆ 면담인사: Octavio J. Corona Flores (띠후아나市 경제개발부 대표)
Manuel Rodríguez Monarrez (경제개발부 산업개발팀장)
-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5.22(월), AM 12:00, 띠후아나 시청 경제개발부

- 1) Baja California Norte 주와 Tijuana 시의 경제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 주십시오.

- ☐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주중 하나인 Baja California Norte는 정치적으로는 멕시코 연방정부와 밀접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California 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 주의 경제는 특히 NAFTA 이후 국경무역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는데, 일일 3천대의 화물트럭(연 140만 대)이 국경을 통과하면서 멕시코 총무역액의 20%를 수송

 - Baja California Norte의 2005년 무역규모는 250억 달러로, 국내 제2의 대미 무역 주임.

- ☐ 예를 들면, 국경도시인 Tijuana는 1970년대 도입된 임가공수출산업(마길라도라)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멕시코에서 가장 인구증가율이 높고, 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며, 상인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으로 성장
 - 9.11 테러사건 이후 강화된 미국의 안보정책, 경기침체, NAFTA 규정에 따른 특혜제도 폐지, 중국의 진출 등으로 마길라도라산업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었으나 연방정부, 주정부, 시청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마길라도라 기업들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에 있음.

□ 이러한 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자본이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있는 Nuevo Leon(Monterrey), Guadalajara, Mexico 등과 더불어 Baja California Norte는 비록 외국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지만 FTA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임.

- 제조업 이외에도 Baja California Norte는 Sinaloa, Veracruz, Colima와 더불어 농업에서도 FTA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로 평가됨.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옥수수, 설탕, 곡물, 수송산업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매우 민감한 사항들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장기간의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많은 멕시코 기업들이 NAFTA 직후 도산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선진기술 도입, 비용절감 등을 통해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웠음.

□ 특히 1994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NAFTA는 그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위기에서 조기 극복할 수 있는 기초가 됨은 물론 멕시코 대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됨.

3) 1994~19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원인 3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3)-(4)-(2)

(1) NAFTA 이행

(2)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3)

(3)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1)

(4)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2)

(5)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6)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점진적인 관세인하를 바탕으로 한 교역 증가

- 미국의 제2의 교역국으로 부상

- NAFTA 발효 이후 멕시코의 기업들도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수출활동에 참여

☐ 외국인투자 증대

☐ 외국인투자로 제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고용 창출

<부정적 효과>

☐ FTA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음.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FTA 영향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의 부재에 원인이 있음.

- 2000년에 멕시코에서는 대통령 선거 결과 사실상의 정권교체를 이룩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진보이지만 그 경제적 대가는 컸음.

- 즉,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던 각종 구조개혁정책을 무난하게 추진할 수 없었음.

☐ 지난 5년 6개월간(폭스 대통령 재임기간) 구조개혁정책 실종에 따른 대표적인 경제적인 비용은 사회 불안정, 특히 고용을 창출하지 못한 것이었음.

- 멕시코사회보장기구에 따르면 공식부문으로의 신규고용 혹은 고용인구는 정체 혹은 감소한 반면, 비공식부문(자영업 포함)으로의 고용은 증가함. 멕시코는 연간 100만 명의 신규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유지해야함.

- 비공식 경제의 성장은 세제감소로 이어지고, 미흡한 고용창출은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길라도라 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역간 양극화 및 그에 따른 빈곤 등 사회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정함. 그러나 FTA를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결합을 향한 연방정부의 정책들과 새로운 공공정책들이 북부지역을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음. 특히 Tijuana에서 Matamoros에 이르는 전체 접경지역에 들어선 주요 마길라도라 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유지에 일조하였음.

☐ 반면, 농촌으로부터 이동한 인구를 포함하여 총인구의 70%가 밀집한 중부지역에서는 수많은 사회문제(실업, 빈곤, 교육, 보건 등)들이 대두되고 있음. 연방 및 주정부들은 사회정책은 물론 산업육성정책 등을 통하여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남부지역에서는 칸쿤이 속한 Quintana Roo 주가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지만, Chiapas, Tabasco, Yucatam 등 다른 지역들은 공공정책(산업육성정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용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년 연평균 185억 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인들의 본국송금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지역별 격차와 절대빈곤을 줄이는 적절한 공공 정책 수단도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임.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지역간 농업발전의 격차는 FTA 보다는 토지소유제도, 영농방법, 작물 등 전통적인 농업구조에서 비롯됨.

☐ 면담자는 실질적으로 연방정부가 방기되어 있는 멕시코 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함.

- 실질적으로 주곡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은 멕시코 농민들로 하여금 옥수수, 수수, 두류 등 각종 작물을 적정 재배하고, 농지를 개량하며, 영농기술 습득 등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등의 중앙으로부터의 계획이 전무하다고 평가함.

- 이에 32개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각 지역별 농업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무엇보다도 각 지방정부가 경제개발정책에 다른 지방의 농업특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정책들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함. 즉, 다른 산업에서처럼 농업부문에서의 지역간 경쟁(동일 작물 재배 등)은 국가 전체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NAFTA 이후 12개 FTA를 추가로 체결하여 시장을 다각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對美 수출이 멕시코 수출의 88%까지 차지하는 등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심화된 것은 사실임.

- 이러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 노력이 부족한 때문으로 판단됨.

□ 대미 의존의 심화는 양국간 정치적 협력관계가 약화되거나 미국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멕시코 경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옴.

- 후자는 FTA의 동조화라는 이론적 분석들에 근거하여 분석할 수 있는 동시에 2001-3년 사이에 실질적으로 경험하였고, 부시 정부 출범 1기에 양국간 정치적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서 겪은 경제난이 전자를 뒷받침함.

□ 경제적 의존은 투자와 무역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수출시장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기업들은 FTA가 이미 체결된 국가는 물론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

- 또한 미국시장에의 의존성은 다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니지 못하는 멕시코 기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으로 투명한 기준, 고기술, 고급인력, 새로운 문화, 교육, 기업가 정신 등으로 무장된 국제적인 경쟁력을 향상하려는 노력이 우선 요구됨.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멕시코는 정치적 변화기에 있고, 차기 정부가 등장할 향후 6개월간 현 정부는 대외경제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차기 행정부와 의회는 분명 새로운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비롯하여 현재의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경제정책을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수립, 시행할 것임.

□ 현재 멕시코는 연방정부는 물론 주정부가 FTA와 관련하여 농업부문, 섬

유, 설탕 등 민감 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구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재검토 하고 있음.

- 따라서 전술한 민감품목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봄.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 수출드라이브와 보호주의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발전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

- 그 결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한국이 더 높고, 정치경제적 안정성에 있어서도 한국이 앞선 것으로 판단됨.

11)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과의 FTA 협상 시점을 비교할 경우 멕시코보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FTA 발효 직후 나타난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과 멕시코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NAFTA의 각종 부정적 현상들이 한국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임.

☐ 오히려 공식협상 개시가 선언되었다면 이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고, FTA 발효 이후의 경제적 효과 등에 얽매이기 보다는 협상에서 최대의 결과를 획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특히 멕시코가 NAFTA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한 거대경제권과의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즉 동등한 게임의 규칙을 강조하기 보다는 개도국이면서 소규모 경제에 대한 배려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함.

- 우리는 NAFTA를 반대하는 측이 멕시코가 NAFTA 협상에서 선진국과의

FTA로 개도국 경제가 겪을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다는 평가에 주목하고 있음.

- 캐나다가 NAFTA 협상 이전에 미국과 체결한 FTA의 결과 첫 해에 25,000명, 두 번째 해에 10,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하자 NAFTA 협상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했는데, 그 사례를 연구, 분석하는 것은 한미 FTA 협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Guanajuato 주

- ◆ 면담인사: Liliana Rojas Domínguez (과나후아또주 COFOCE 대외무역진흥조정관 겸 국제실 실장), Daniel Melendez Sánchez (Leon市 경제개발부 제도개선 과장)
-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5.23(화), AM 10:00, 레온시 경제개발부

- 1) Guanajuato 주와 Leon 시의 경제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 주십시오.

- NAFTA 이전 주요 경공업 지역이었던 Guanajuato는 시장개방과 동시에 기존의 보호주의아래 안주했던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개방정책의 희생지역으로 알려졌음.

-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GM과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최근에는 FTA의 수혜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Guanajuato의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국가 전체보다 높고, 공식부문의 고용증가율도 연간 15,000명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수출도 1994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대미수출이 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5년에 경제규모는 33개 주(연방구 포함) 가운데 7위를 차지하였음.

□ 30여 년간 보호주의정책에 안주했던 경공업 분야(신발, 섬유, 봉제 등)는 비록 FTA로 인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겪었지만, 자본 확충, 기계화, 독자 디자인 개발, 자기 상표 개발, 유통망 확보 등에 힘썼던 분야는 세계화 시대에 생존하여 미국, 유럽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음.

- NAFTA 직후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도 지방개방 보다는 1994년의 갑작스런 외환위기에 영향을 받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Guanajuato 주의 농업은 이미 30년 이전부터 극심한 이농현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농산업 분야만이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출, 고용 등)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개인적으로 교역, 투자, 고용 등의 측면에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시장개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 경쟁력 향상, 고용증가, 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음.

□ NAFTA를 비롯하여 모든 공공정책에 양대 입장이 있음을 인식

3) 1994~19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원인 3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5)-(3)-(2)

(1) NAFTA 이행

(2) 외환위기 (페소화 절하) (3)

(3)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2)

(4)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5)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1)

(6) 미국경기침체

-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교역(수출) 및 투자유입(FDI) 증대

☐ 성장률

☐ 기술 진보

<부정적 효과>

☐ 무응답

-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그러나 비록 FTA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NAFTA의 주된 성과가 출범 초기보다는 현재 줄어드는 한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동조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됨.

-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킬라도라 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 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질문의 각 측면에 내포된 양극화 현상이 멕시코에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함.

☐ 그러나 현재 양극화의 희생자로 인식되는 부분은 FTA가 아니었다라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희생자가 되었을 것임.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지역균형개발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

☐ 마길라도라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는 Guanajuato 주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메카가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현재 진행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6번 질문에 대한 동일한 입장임.

- 농업부문의 양극화는 시장개방 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임.

☐ 옥수수 등 생계농의 경우 지원정책 등과 관계없이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임.

☐ Guanajuato 주의 경우 브로콜리 등 수출가능 품목을 생산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변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멕시코 기업들의 습관 혹은 문화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다음으로는 수출의 경우 많은 부분이 재수입을 전제로 한 미국투자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시장을 겨냥한 외국투자자들도 증가한 결과임.

□ 미국경제에 대한 의존성 증대는 기존의 수출 및 투자를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석유가격 상승 등)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그 이차적 효과가 멕시코 경제에 바로 미치는 것임.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FTA를 활용하여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는 것인바, 현재로서는 유럽과 MERCOSUR, 중미지역이 주요 시장으로 다가서고 있음.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NAFTA를 예를 들면 미흡한 부분이 많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농업부문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의 보조금 문제를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함.

- NAFTA 체제에 한정할 경우 멕시코의 농업은 미국이 제공하는 농업보조금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고 생각함.

- 이를 뒷받침 하듯이 2004년 농업부문의 추가 개방을 앞두고 멕시코 농민 단체들이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

□ NAFTA 협상 당시 멕시코는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독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함.

-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협상시한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사전에 혹은 협상과정에 FTA로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한국경제에 대한 식견이 없지만, 한국경제는 NAFTA 협상직전의 멕시코 경제보다는 훨씬 앞서 있고, 경제적으로 물론 정치사회적으로 매우 매우 안정된 국가임.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성장, 교역, 잠재력 발굴 등 NAFTA 이후 멕시코에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감안할 경우, 한국이 NAFTA 체결 직전의 멕시코보다 현실적으로 더 나은 조건들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멕시코와 유사한 변화를 보일 것이라는, 특히 경제위기 등 부정적인 측면에서 경제난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러한 평가는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1995-96년 멕시코의 경제난이 FTA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기인했기 때문임. 특히 연방정부의 무능과 금융체제의 취약성 등이 경제위기의 원인이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3. Sinaloa 주

◆ 면담인사: Sergio Mario Arredondo (Sinaloa주 경제개발부 산학연계조정관),
Erik C. Dieguez Contreras (경제개발부 경제분석관)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5.25(목), AM 12:00, 주청사 경제개발부
(Culiacan시 소재)

1) Sinaloa 주의 경제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 주십시오.

☐ NAFTA 이후 Sinaloa 주는 다른 북부의 주들과 더불어 농업 수출이 크게 신장되어 혜택을 받은 사례로 평가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수출구조가 크게 변화되었음.

- 1998년에 제조업 13%, 농축산업 68%이던 수출구조는 2004년에 각각 40%와 51%로 변화되었음.
 - 제조업 수출 증가의 배경에는 대만,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섬유,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때문인데, 마길라도라 기업은 현재 9개에 불과하지만 일반 제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은 최근 2년 사이에 40여개로 급증하였음.
 - 이러한 투자 급증은 수출증가 이외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바, 2005년에만 22,000명이 신규로 고용되었음.
- 이러한 주 경제구조로 인하여 2005년에는 3.7% 성장에 이어 2006년에는 5.1%의 성장이 전망되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 특히 9.11 테러 이후, 그리고 미국경제 침체와 함께 북부 주요 주들의 수출이 위축되는 현상을 겪었지만, Sinaloa의 경우 마길라도라 기업이 적은 대신에 농업수출이 주를 이루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
- Sinaloa는 1차상품의 수출잠재력이 높은 주인데, 전적으로 FTA의 효과는 아니지만 수출 농산물 대부분이 미국으로, 특히 캘리포니아로 수출됨. 연간 8억 달러에 달하는 농산물 수출 가운데 약 90%가 채소류로 특화되어 있음.
- 최근 미국내 중남미계 인구가 급증, 기호 변화, 멕시코계 식당 체인점 출현(Tex-Mex) 등으로 중남미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이 경우 Sinaloa의 농산물 수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2004년에 미국 총인구의 14%인 4천4십2만 5천명이 히스패닉이고, 이 가운데 66%인 2천6백6십3만 명이 멕시코계임. 이들 히스패닉의 연간 구매력이 6,300억 달러에 달하고 인구증가율도 매우 높아 중남미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및 개인적인 평가는?

☐ 멕시코에 있어 시장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음.

☐ 2006년 현재 멕시코의 경제규모(세계 10위), 교역(세계 8위, 중남미 1위) 등의 경제적 성과를 감안할 경우 시장개방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2006년 5월 현재 멕시코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일정에 들어가 있는데, 차기 정부 및 의회가 어느 정당에 의하여 장악되더라도 개방정책 기조는 유지되어야 할 것임.

3) 1994~19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원인 3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2)-(4)-(5)

(1) NAFTA 이행

(2)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1)

(3)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4)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2)

(5)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3)

(6)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규모의 경제(세계 11위 경제 규모) 및 경제성장

☐ 교역량(수출 및 수입) 및 투자유입(FDI) 증대

<부정적 효과>

□ 양극화 현상: 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

- 특히, 멕시코는 총인구면에서 세계 10위인데, 이 가운데 5,500만 명이 빈곤층이고 2,500만 명이 극빈층이어서 빈곤의 역사를 지속하고 있음.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NAFTA로 미국과의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결과로 나타난 경기침체였기 때문에 한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음. 그러나 무역자유화의 결과라고 보지는 않음.

□ 또한 미국경기에 동조한 경기침체도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되었는데, Sinaloa와 같이 미국경기에 민감한 마길라도라 산업이 발전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았음.

- 2001-2년 당시, 현재도 동일하지만 마길라도라 업체로 등록된 기업은 9개에 불과하였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길라도라 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는 세계화의 두 얼굴이라는 점에서 인정함. 주로 지리적 위치 등 각종 장점을 지닌 북부지역이, 경쟁력과 효율성을 구비한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들이, 내수시장보다는 대외시장을 목표로 한 기업들이 혜택을 받았음.

□ 이러한 결과 지역별 고용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다시 소득불균형으로 이어졌음.

□ 그러나 무역자유화를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비경쟁적인 부문은 자연적으로 도태되었을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을 수용하는 바이며, 단지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방안들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임.

- 멕시코에서는 무역자유화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들이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균형개발정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 사회안전망프로그램 등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리고 한편에서 주장하는 세계화에의 역행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아닐 것임. 멕시코의 자유화 정책은 지속되어야 함.

□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도화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고도의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산업을 해외로부터 유치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최근 노동비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존의 저부가가치 마길라도라 업체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지만, 전자 및 자동차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유입되고 있어 오히려 마길라도라 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마길라도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고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임.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농업에 있어서 지역별, 농가별, 작물별 격차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전적으로 NAFTA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멕시코가 역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농업 및 농촌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실질적인 뿌리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임.

□ 시장개방으로 관세가 철폐되면서 미국과의 농산물 수출입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접경한 북부지역은 지리적 장점과 미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작물을 재배 수출함으로써 수혜자로 자리 잡았고, 소규모 곡물 생산자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전락하였음.

- 그러나 수혜자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 작물 선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반면, 곡물 재배자의 경우 전통적인 영농방법과 영농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소규모 생계농이었음.

- 비록 곡물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농업부문의 퇴출은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

□ 농촌사회의 소득불균형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농촌의 자연적인 구조조정(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의 결과가 누적되어 온 것임.

- 농업시장 개방으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을 수는 있지만, 불균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님.

□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농촌사회의 소득지원 정책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시적인 방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농규모의 대형화, 자본 지원, 영농기술 고도화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들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다양한 FTA의 장점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음. 즉 시장을 다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진출이 미흡함.

- 그러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에 한계를 보이는 것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것임.

- 또한 미국과 중남미 지역을 제외하고 멕시코 기업들의 해외 투자진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도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임.

☐ 의존성 증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요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음. 상대국의 경기변동에 따라 동반적으로 경기변동을 겪는다는 점임.

- 또한 경제정책에 있어 독립성을 상당 부문 훼손당한다는 점임. 예를 들면 세계화 시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달러 이외의 수단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무역자유화는 멕시코 경제발전전략으로 향후 지속되어야 함.

☐ 이미 농업부문의 추가 개방을 앞두고서 2003년말에 NAFTA에 문제가 있음을 모두 인식하였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협상을 통한 개정의 가능성을 전망하기는 어려움.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개인적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현시점에서 볼 때 한국은 멕시코보다는 안정된 경제 환경에 있고, 기술과 제도 등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단지 부족한 것은 FTA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임.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위기 혹은 경제난과 FTA 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따라서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한국경제가 멕시코의 사례와 같은 진로를 겪을 것이라는 예측 혹은 전망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

4. Chiapas 주

- ◆ 면담인사: Rubén Garrido Hernández (Chiapas 주 경제개발부 무역담당 차관)
- ◆ 면담일시 및 장소: 2006.5.26(금), PM 14:00, Chiapas주 경제개발부 (Tapachula시 소재)

- 1) Chiapas 주의 경제 사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개방, 특히 NAFTA를 전후로 발생한 변화를 평가해 주십시오.

- ☐ Chiapas는 전통적으로 1차 산업, 특히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그러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실시하면서 농산업을 중심으로 한 2차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서비스업의 비중도 높아졌음.

-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의 저변에는 육상 및 해상교통체제의 개선과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가 동반됨.

- ☐ 수출상품의 부재, 특히 국제수요에 부응할만한 상품이 없어 치아빠즈 주의 대외수출은 미약함.

- 비록 대리석, 벌꿀, 옥수수 수출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생산가격과 수출가격이 비대칭적으로 변화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사실상의 입지를 상실한 상태임.

- NAFTA로 북미시장 진출 가능성도 있었지만, 엄격한 위생검역기준과 같은 장벽과 중·북부지역 주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송비용 등은 수출증가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

- 그러나 중남미 지역, 유럽 등과의 FTA 발효로 Chiapas 농산물(농산업 제품 포함) 수출의 기회는 증가되고 있음. 특히 과거 과테말라 영토였던 Chiapas 주정부는 북미보다는 중남미 지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Chiapas 경제의 변화는 FTA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평가임.

2) 1985년 이래 추진해온 무역자유화정책, 특히 NAFTA에 대한 멕시코내 혹은 개인적인 평가는?

☐ FTA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대외정책으로 간주되지만, NAFTA의 경우에는 주 경제와는 거의 무관한 상황임.

☐ 양극화 현상(지역간,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이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FTA의 영향은 아니며, 양극화 현상도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개발정책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3) 1994~1996년 멕시코 경제상황 악화의 주요원인 3가지를 보기에서 순서대로 고르면? 응답: (4)-(3)-(5)

(1) NAFTA 이행

(2) 외환위기 (폐소화 절하)

(3) 1985년부터 진행되어온 무역자유화효과의 누적 (2)

(4) 1985년 이전 70여 년간 지속되어온 폐쇄경제(수입대체공업화) 체제의 모순 잔존 (1)

(5) 정치사회적 불안정성 (3)

(6) 미국경기침체

4) NAFTA 등 FTA 체결이 멕시코에 가져온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무역, 고용, 투자, 산업별/지역별 효과 등 고려)

<긍정적 효과>

☐ 교역 및 투자 증대

☐ 산업구조조정 촉진으로 인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

<부정적 효과>

☐ 수출관련 산업의 지나친 지역편중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 도시빈민화 확산, 이농 및 농촌사회 공동화 현상

5) 1985년 이후의 무역자유화, 특히 NAFTA가 최근 멕시코 경제성장 둔화의 한 원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1년 이후 나타난 경제성장 둔화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당하거나 위기직전까지 내몰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하면 안정적이었음.

6)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수출산업(마킬라도라 산업)만 혜택을 받고 과거 제조업 중심지(멕시코시티 공업벨트, 과거 수입대체산업, 내수산업) 등 중부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해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산업입지와 기업활동 등에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점에는 동조하지만, 그 원인이 NAFTA 등 무역자유화정책에 있다는 견해에는 찬성할 수 없음.

☐ 수출산업의 주요 입지는 대외무역정책과는 상관없이 비용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선정되며, NAFTA 이전부터 존재했던 마킬라도라산업의 운영 원리가 낮은 총비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북부지역이 수출산업활동의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해야함.

☐ 과거 제조업 중심지 혹은 기업들의 도태는 적자생존의 자연적인 현상으

로서, 경쟁력이 없는 부문의 퇴출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함.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러한 점에서 최근 멕시코가 노력하고 있음.

□ Chiapas 주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애로가 있지만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펴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마킬라도라 기업들의 기업가 정신이 우선 전제되어야 함.

- 그러나 최종재 조립라인 중심의 산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단순 임가공수출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고도화는 어렵다고 판단됨.

7) NAFTA 등 무역자유화로 북부지역 농업(미국에 신선채소수출, 현대적 경작기술, 관개농업)만 혜택을 받고 남부지역 소규모 농업(생계농, 전통 경작기술 사용, 곡물, 빗물사용)은 혜택을 받지 못해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농 및 공동화 심화가 농촌사회의 불안정을 가중했다는 점에는 동조하지만, 무역자유화 자체가 지역간 농업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에는 동조할 수 없음.

-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농촌지역의 경우 역사적으로 구축되어온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음. 즉, 비경쟁적인 분야의 자연적인 퇴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근 그 공백을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농산업 분야가 대체하고 있음.

- 북부지역 농업변화가 그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남부지역도 내부적으로 비대칭성을 줄이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 Chiapas의 경우 1994년 NAFTA 발효 동시에 농민들이 중심이 된 무장봉기가 발생하여 대외적으로는 최악의 농촌사회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최근에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개선된 사회간접시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시장을 개척하면서 비대칭성을 줄이고 있는 상

황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되는 무역과 투자확대가 전국의 농촌으로 확산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

8) 멕시코 경제의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미 의존적 교역구조가 멕시코 경제에 주는 효과는 무엇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 NAFTA 이전의 경제관계 및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FTA가 아니었더라도 미국시장과 미국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성은 지속되었을 것임.

☐ 그 주된 원인은 생산입지와 관행에 있음.

- 관세문제가 아니더라도 멕시코의 생산입지(저렴한 노동비용, 지리적 인접성 등)는 미국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자의 최대의 고려사항이었고, 미국시장 진출에 익숙한 멕시코 기업들의 경우 안정적인 북미시장 이외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적었음.

☐ 북미시장 의존경제의 효과는 경제의 동조화현상(부정적 혹은 긍정적), 수출시장의 편중화, 수출액 증대의 한계 등임.

- 또한 NAFTA 이외에 체결한 FTA가 주는 혜택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임.

9) NAFTA 등 기존 FTA에서 미흡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 멕시코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주정부는 NAFTA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나 수정 혹은 재협상은 연방정부의 몫임.

☐ NAFTA 운송산업 개방일정 지연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의 비대칭성을 줄이려는 노력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10) 멕시코 경제와 한국경제에 대한 귀하의 비교평가는?

(양국의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양국의 산업 경쟁력에 대한 비교, 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비교)

☐ 양국 경제를 비교할 위치에 있지 않음.

11) 끝으로 NAFTA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한-미 FTA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방향이 유사할지 다를지 견해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규모 및 구조, 산업경쟁력, 거시경제적 상황, 시대적 차이, 문화 차이, 지리적 위치 등 많은 측면에서 상이한 한국과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과의 FTA 체결로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근거도 취약함.

☐ 따라서 전망일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기 보다는 멕시코의 사례분석이 가치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FTA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협상과정에서 적극 통과시키는데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 표 1> 멕시코의 국가별 FDI 유입 비중

(단위:%)

지역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선진국	55.3	81.3	71.0	79.2	62.8	96.9	96.2	97.7	94.7
서유럽	13.2	21.1	12.3	22.6	16.8	29.0	16.4	15.5	20.5
EU	12.9	19.1	11.4	22.4	16.4	28.1	15.6	15.1	17.8
오스트리아	0.0	0.0	0.0	0.0	0.0	0.0	0.0	0.0	0.0
벨기에	0.0	0.6	0.0	0.3	0.3	0.3	0.1	0.3	0.4
덴마크	0.1	0.2	0.2	0.1	0.6	1.4	0.9	0.7	1.4
핀란드	0.0	0.0	0.0	0.0	0.0	0.2	1.4	0.3	0.3
프랑스	0.6	1.3	1.2	0.4	1.1	1.3	-16.6	1.4	1.5
독일	2.0	5.7	2.0	3.4	1.1	5.8	2.2	-0.8	4.9
그리스	0.0	0.0	0.0	0.0	0.0	0.0	0.0	0.0	0.0
아일랜드	0.0	0.0	0.2	0.1	0.0	0.0	0.0	0.0	1.2
이탈리아	0.0	0.1	0.2	0.2	0.1	0.3	0.2	0.1	0.1
룩셈부르크	0.1	0.1	0.1	0.0	0.1	0.1	0.2	0.5	0.2
네덜란드	5.0	7.7	4.9	2.5	8.7	7.1	15.5	10.4	5.0
포르투갈	0.0	0.0	0.0	0.0	0.0	0.0	0.0	0.0	0.0
스페인	1.0	0.5	0.7	2.3	2.5	7.7	12.2	2.3	2.5
스웨덴	0.1	0.6	1.0	0.1	0.5	5.4	-2.2	-0.5	-0.4
영국	3.9	2.3	0.8	12.9	1.5	-1.5	1.5	0.4	0.7
기타	0.4	2.1	0.8	0.2	0.4	0.9	0.8	0.4	2.7
스위스	0.4	2.1	0.8	0.2	0.4	0.9	0.8	0.4	2.7
북미	37.9	58.6	57.3	54.2	45.1	58.3	77.0	81.6	73.3
캐나다	4.9	1.8	5.2	1.7	1.7	4.5	3.6	3.4	0.3
미국	33.0	56.8	52.1	52.5	43.5	53.7	73.4	78.2	72.9
기타 선진국	4.2	1.6	1.4	2.5	0.8	9.6	2.7	0.7	1.0
일본	4.2	1.6	1.4	2.5	0.8	9.6	2.7	0.7	1.0
개발도상국	15.1	4.5	5.8	5.9	3.3	2.5	3.0	1.9	2.2
중남미	6.8	2.7	1.6	4.0	2.2	1.5	2.1	1.5	1.7
남미	0.1	0.2	0.0	0.4	0.2	0.1	0.3	0.1	0.2
칠레	0.0	0.1	0.0	0.3	0.1	0.0	0.0	0.0	0.3
우루과이	0.0	0.2	0.0	0.1	0.1	0.1	0.2	0.1	-0.1
기타	6.8	2.4	1.6	3.7	2.0	1.4	1.8	1.4	1.5
아시아	8.2	1.9	4.2	1.9	1.1	1.0	0.9	0.4	0.5
중국	0.0	0.1	0.1	0.0	0.1	0.0	0.0	0.0	0.0
인도	8.1	0.5	2.9	0.2	0.0	0.0	0.2	0.0	0.0
필리핀	0.0	0.1	0.0	0.0	-0.1	0.0	0.0	0.0	0.0
한국	0.1	1.1	0.9	1.4	0.4	0.4	0.1	0.1	0.2
싱가포르	0.0	0.1	0.3	0.1	0.3	0.5	0.5	0.2	0.2
대만	0.0	0.0	0.0	0.1	0.3	0.1	0.0	0.1	0.0

자료: UNCTAD, SECOFI, Dirección General de Inversión Extranjera

<부록 표 2> 멕시코 지역별 1인당 GDP

	1인당 GDP (전체 국가평균 =100.0)				연간 1인당 GDP 증가율(%)			
	1970	1985	1993	2001	1970-85	1985-2001		
						Total	1985-93	1993-2001
국가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82	1.13	0.78	1.48
국경 지역	128.70	125.30	129.28	135.73	1.64	1.64	1.18	2.09
Baja California	144.98	129.85	126.63	124.19	1.08	0.85	0.47	1.23
Coahuila	120.07	120.32	120.55	130.07	1.84	1.62	0.81	2.44
Chihuahua	101.17	102.24	128.58	138.73	1.89	3.08	3.71	2.44
Nnuevo León	166.48	164.64	165.81	173.74	1.75	1.47	0.87	2.07
Sonora	138.44	119.50	114.79	123.96	0.83	1.36	0.28	2.45
Tamaulipas	104.74	102.82	100.67	104.28	1.70	1.22	0.52	1.92
북부 중앙	72.55	79.04	79.52	80.77	2.41	1.27	0.86	1.67
Aguascalientes	79.46	85.59	105.42	122.61	2.33	3.43	3.44	3.41
Baja California Sur	138.68	117.73	132.27	127.15	0.72	1.62	2.26	0.98
Durango	71.52	90.17	80.72	85.56	3.41	0.80	-0.60	2.22
Nayarit	75.85	79.56	66.15	61.96	2.15	-0.44	-1.52	0.65
San Luis Potosí	58.39	70.18	72.55	73.11	3.08	1.39	1.20	1.57
Sinaloa	93.58	84.61	86.70	81.03	1.14	0.86	1.09	0.62
Zacatecas	51.44	59.42	55.58	56.58	2.81	0.82	-0.05	1.70
남부 중앙	74.86	78.77	72.86	73.10	2.17	0.66	-0.19	1.52
Colima	85.56	107.88	103.29	95.32	3.41	0.35	0.24	0.46
Guanajato	71.22	70.73	69.01	68.74	1.78	0.95	0.47	1.43
Hidalgo	53.86	69.33	64.93	60.47	3.55	0.27	-0.04	0.58
Jalisco	103.78	106.45	100.01	99.28	2.00	0.69	0.00	1.38
Michoacán	52.44	55.72	54.39	56.88	2.24	1.26	0.48	2.04
Morelos	84.11	86.08	96.69	91.48	1.98	1.51	2.26	0.78
Puebla	61.98	67.71	63.60	65.73	2.42	0.94	0.00	1.89
Querétaro	79.06	109.10	104.67	118.16	4.03	1.63	0.26	3.02
Tlaxcala	45.63	75.66	52.96	56.13	5.31	-0.74	-3.61	2.21
Veracruz	81.24	75.59	60.74	58.04	1.33	-0.53	-1.93	0.90
멕시코 시티	162.13	143.90	154.42	148.49	1.02	1.33	1.68	0.98
Distrito Fedral	192.37	189.14	248.09	255.24	1.71	3.04	4.26	1.84
México	107.90	99.13	82.42	79.71	1.25	-0.24	-1.52	1.05
남부	48.71	62.65	60.04	57.15	3.55	0.55	0.25	0.85
Chiapas	49.23	69.01	45.30	42.63	4.14	-1.87	-4.38	0.71
Guerrero	51.67	56.95	58.24	52.13	2.49	0.57	1.07	0.08
Oaxaca	35.24	50.93	46.05	42.48	4.35	-0.01	-0.48	0.46
Quintana Roo	97.98	117.55	183.06	151.21	3.07	2.73	6.52	-0.92
Yucatán	71.50	70.94	76.63	80.21	1.77	1.91	1.76	2.05

자료:D.Chiquiar(2005), INEGI, Campeche와 Tebasco는 제외

<부록 표 3> 한국과 멕시코의 대세계 경쟁력 비교(2001-03년 평균)

산업	HS분류	한국	멕시코
가공식품	15-24	0.26	0.64
광물성 생산물	25-27	0.42	0.91
화학공업	28-38	0.52	0.33
플라스틱	39, 40	1.40	0.55
원피, 가죽, 모피	41-43	1.01	0.33
목제품	44-46	0.04	0.19
목재펄프, 종이	47-49	0.49	0.33
섬유제품	50-63	1.58	1.06
신발, 모자	64-67	0.52	0.25
시멘트, 유리	68-70	0.48	1.08
철강	72,73	1.39	0.64
비철금속	74-83	0.71	0.76
전기전자		1.87	1.76
반도체	8541, 8542	2.18	0.24
통신기기	8525-6,8529,8517	3.08	1.70
가전기기	85(-반도체,통신기기)	1.31	2.74
컴퓨터	8471, 8473	1.76	1.49
기계장비		0.69	0.86
기계	84(-8471,8473)	0.79	0.81
정밀기기	90-92	0.43	1.00
자동차	87	1.14	1.79
철도, 항공기, 선박	86, 88, 89	3.32	0.25
기타제조업	71, 93-99	0.33	0.63
1차산업	1~24	0.22	0.69
제조업	28-99	1.15	1.04
전산업	1-99	1.00	1.00

자료: 저자가 UN COMTRADE 자료에서 계산

<부록 표 4> 멕시코의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단위:백만달러)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Portfolio Investment Assets)			포트폴리오 투자 부채 (Portfolio Investment Liability)		
		지분증권 (Equity Securities)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지분증권 (Equity Securities)	채무증권 (Debt Securities)
1990	-7,354	0	-7,354	3,369	1,995	1,374
1991	-603	0	-603	12,741	6,331	6,410
1992	1,165	0	1,165	18,041	4,783	13,258
1993	-564	0	-564	28,919	10,716	18,203
1994	-767	0	-767	8,182	4,084	4,099
1995	-662	0	-662	-9,715	519	-10,234
1996	544	0	544	12,585	2,801	9,785
1997	-708	0	-708	4,704	3,215	1,488
1998	-769	0	-769	1,027	-666	1,693
1999	-836	0	-836	12,005	3,769	8,236
2000	1,290	0	1,290	-1,134	447	-1,581
2001	3,857	0	3,857	3,882	151	3,731
2002	1,134	0	1,134	-632	-104	-528
2003	91	0	91	3,864	-123	3,987
2004	1,718	0	1,718	6,126	-2,522	8,649

자료: IMF, IFS CDRom 2005

<부록 표 5> 멕시코의 국경 간(Cross-border) 인수합병(M&A) 현황

(단위:백만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매각	2,326	10	961	1,864	1,913	719	1,428	7,927	3,001	859	3,965	17,017	7,137	1,155	6,430
매수	680	3	888	309	2,190	196	867	3,154	673	2,216	4,231	363	4,664	5,282	1,973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3 ,*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부록 표 6> 그린필드(Greenfield) FDI 프로젝트 수

	2002	2003	2004
세계	5,656	9,303	9,796
멕시코	129	168	154

자료: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Executive Summary

Economic Changes in Mexico after NAFTA and Implications

Chang - Soo Lee, Min Sung Kim, Chang- In Yoon, and Jin-O, Kim

Since NAFTA was implemented in 1994, Mexico's main macroeconomic indicators, such as the economic growth rate, trade and FDI inflow,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have been experiencing positive growth. NAFTA was pointed out to be a significant factor behind such positive changes.

Alo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NAFTA, however, Mexico has been undergoing declining real GDP, an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and experienced damages to its subsistence farmers in the 1995-96 period. It also has been experiencing deepening income inequality and imbalances among industries and regions since trade liberalization in 1985.

It has been argued that NAFTA is a direct cause of these negative phenomena in Mexico. But this study shows that these negative phenomena stem from by various factors, from a sudden devaluation of the peso, sociopolitical instability, incompetence and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conomic structural problems, to an insufficient domestic settlement policy. These also helped to prevent the full realization of the potential benefits of trade liberalization. NAFTA was thus not the central reason behind the negative phenomena of the mid-1990s.

According to survey responses from local governors, the idea that similarly negative effects in Korea due to FTAs is unfounded and irrational, in that Korea has been evaluated in a more stabl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nd has more advanced technology and institutions than Mexico. Unlike Mexico, Korea has retained relatively weakened income inequality, an absence of inefficient and non-competitive insolvent companies, global competitiveness of fundamental industries, and high levels of social cohesion, human resources, and R&D investment when compared with Mexico.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the potential positive effects of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for Korea are expected to exceed Mexico's.

In light of Mexico's case, it is important to collect diverse public opinion and to make an effort to negotiate for maximum benefits in the process of FTA negotia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proper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s that developing countries undergo due to FTAs with developed countries, and formulate efficient policies for those who lose out from an FTA.